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7월 20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 '단독 출마' 확정

8월 9일 후보등록…11일 마감까지 유일 후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후보에 前 교육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단독 출마했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 절차 없이 당선토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진우 스님은 후보자 자격심사 이후 제37대 총무원장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일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은 처음인데다, 선거인단 다수를 차지하는 종회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합의추대로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절차에 따라 후보등록 접수를 진행했다. 前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첫날인 8월 9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접수해 기호 1번이 책정됐으며,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5시까지 추가접수 없이 마감돼 단독 출마자로 확정됐다.

특히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는 기존 단일후보라도 선거절차를 거쳐야 했던 이전과 달리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단일후보 시 무투표당선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으로 진우 스님의 무투표당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개정된 선거법상 무투표당선
자격심사후에는 사실상 확정
원로회의 인준절차를 거친뒤
임기는 9월 28일부터 시작돼

7월 30일 종단 원로 · 중진 스님들이 만나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제37대 총무원장에 대한 합의추대가 가능하길 바란다"고 공의를 모은 데 이어,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8월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해 '검증된 단일후보에 대한 합의추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이 기호 1번으로 후보등록을 한 직후, 선거인단 다수를 차지하는 중앙종회의 5개 종책모임이 공동지지 선언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중앙종회 81명 의원 전원이 종책모임에 가입해 있다는 점에서, 진우 스님은 사실상 중앙종회의 지지를 받는 유력후보로 압도적인 당선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진우 스님은 8월 10일 출마인사말을 발표하고 "소통과 포교, 교구를 종단 운영 3대 기조로 삼겠다"며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서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당간지주를 세워온 수 많은 스님들이 시대마다 이끈 소명의식과 수범한 공덕의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신념으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의 원력을 세우고자 한다"며 "종단 운영의 막중한 책무가 맡겨진다면 첫째로 소통, 둘째 포교, 셋째로 교구를 종단 운영의 3대 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첫 번째 공약으로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가운데 현재의 소통으로 불교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다.

또 스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사명으로 도심 포교와 청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방안의 지혜를 바르게 모아가야 하겠다"며 "교구발전이 불교중흥이며, 불교중흥이 교구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교구본사 중심의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제안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무원장으로서 불교발전을 이끌겠다는 자신감도 함께 드러냈다. 스님은 "수승한 가르침과 원로대덕의 덕화를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지혜와 공감이 세상과 함께하는 원력으로 나아가고, 중흥의 길을 환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묻고 답을 찾고자 한다. 후대에 보여 줄 불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지난 공덕 위에서 해답을 보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이 유일한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8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무투표당선이 확실시된다. 진우 스님은 이미 교육원장 외에도 총무원 집행부 소임과 총무원장 권한대행 등 자격이 검증된 인사라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자격심사도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경우 절차에 따라 원로회의 인준을 거치면 9월 28일부터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1978년 보현사에서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담양 용흥사와 제18 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재심호계위원과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호법부장, 사서실장 소임과 총무원장 권한대행, 불교신문사 사장과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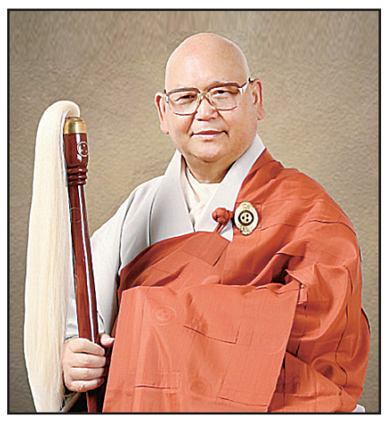
〈관련기사 2면〉



신도시 포교 거점 세종 광제사 문 열다 조계종 총무원 제36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 10대 사업 중 하나로 신도시 포교와 함께 한국불교 문화를 내외국인에게 전수할 세종 광제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8월 9일 광제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낙성법회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 신도시 포교 거점사찰 창건을 축하했다.
세종=임은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관련기사 3면〉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월탄 대종사 원적

8월 8일 단양 미륵대흥사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



조계종 원로의원 미룡당 월탄 대종사〈사진〉가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주석처인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법납 68년 세수 86세로 원적했다. 월탄 대종사의 영결식은 8월 8일 미륵대흥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엄수됐다.

월탄 스님은 평생 수행자의 길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며 종단과 한국불교 중흥,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전법의 등불을 밝히며 정진했던 스승이었다. 1957년 4월 당대의 선지식인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화두참구에 매진했으며, 종단과 교구본사 소임을 맡은 후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했다. 특히 '대법원 6비구 할복사건'의 당사자로, 위법망구 정신으로 불교정화를 이끌었다.

한평생 시대적 소임을 외면하지 않고 출가수행자로 한길을 걸었던 월탄 스님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미륵대흥사 정화당에서 입멸에 들었다.

〈관련기사 2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96개 선원 하안거 해제

성파 종정예하 "지속 정진" 당부

임인년 하안거 기간 중 선방에서 용맹정진한 수좌들이 8월 12일 하안거 해제를 맞아 일제히 산문을 나섰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하안거 해제법어를 내리고 부단한 정진과 회향을 당부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8월 12일 임인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선원대중들을 위해 법어를 내리고 "간절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걸음걸음은 바른 법이 활용되도록 하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되게 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성파 대종사는 "오직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는 선방에 폭염은 오히려 서늘했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었으며 무풍한송은 그 향기 더욱 그윽하게 되었도다"라며 "안거가 여법하게 시행되고 화두참구의 수행가풍으로 정진하는 종단의 수행전통은 참으로 수승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찬탄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의 '임인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안거기간 전국 96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58곳, 비구니선원 31곳)에서 1949명(총림 222명, 비구 1099명, 비구니 628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6면〉

송지희 기자



깨달음의 열쇠!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



전등록은 7불로부터 1조 가섭존자, 28조 달마대사, 33조 혜능대사 등 52세대 1,701인의 계보와 조사들의 깨달음의 골수를 말 밖의 말로 기록한 선종 최고의 공안집이다. 그러기에 지식이나 알음알이로는 선사들의 요지를 깨달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농선 대원선사가 선문염송30권, 화엄경81권을 완역한 혜안으로 각 조사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문을 열어 보였다.

역저 농선 대원선사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이 시대 유일한 선교 양종의 대종장으로
화엄경81권 완간

7불로부터 역대 조사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깨달음의 진수

이 시대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전등록 30권 완역본 / 500부 한정판매 / 도서출판 문젠 T: 010-8670-1445

위법망구 정신으로 불교정화 이끈 월탄 스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8월8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종단 원로회의장으로 영결식
"정화불씨 살렸던 주역" 추모
한평생 정화정신 유지실천해

한국불교 혼란기에 위법망구 정신으로 불교정화를 이끌었던 미룡당 월탄 스님의 영결식이 8월 8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자를 비롯해 사부대중들이 운집해 스님의 생전 가르침과 행장을 되짚으며 마지막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문도대표의 헌다 · 헌향에 이어 행장 소개와 생전 법문, 원로의장 학산대원 대종사의 영결사,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법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추도사 등으로 진행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의 조사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문근 단양군수도 조사를 통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법어에서 "월탄 스님은 위법망구를 행동으로 보여 정화불씨를 살려낸 정화 육비구 가운데 한분"이라며 "거룩한 구법행이 여론을 바꾸고 정화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오늘의 여법한 조계종단을 만드셨다"고 추도했다.

생전 불교정화를 주도했던 만큼 이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월탄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대법원 6비구 할복사건'의 당사자다. 광복 후 비구대처간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 대법원의 판결로 불교정화 운동의 정당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반발해 순교에 나서, 정화불씨를 되살리고 사회적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원로의장 대원 스님은 "어려운 때 스님께서 남기신 정화정신과 무한한 공덕에 위안을 얻는다"며 "스님의 높으신 정화정신과 도덕의 공덕은 미래겁이 닿도록 말을 해도 다하지 못하고 불교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8월 8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영결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추도사에서 "정화의 물줄기로 한국 불교의 계율 정신을 되살리신 대종사를 적멸의 세계로 보내드린다"며 "생사와 별리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미욱한 대중들은 허허롭지만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추모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외부의 조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에서 "부처님의 정법과 한국불교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용맹정진하신 분"이라며 "부처님 정신을 널리 펼치는데 정진해 오신 뜻을 기리고 대자대비의 정법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월탄 스님은 불교정화 이후 출범한 종단에서 총무원 집행부 소임을 맡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중앙종회의원을 수차례 역임하고 종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입법을 통한 체제정비에도 원력을 쏟았다. 종단을 위한 역할에 매진하면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화정신을 꼿꼿하게 이어갔다는 점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는다.

종단 원로 정휴 스님(화암사 회주)은 "승가 대선배이신 월탄 스님은 과거 한국불교 혼란기에 당대 큰스님들이 이끌던 불교정화운동에 헌신해 정화의 기치를 세웠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이 이후의 행보"라며 "월탄 스님은 평생에 걸쳐 계율에 어긋남 없이 정화정신을 꼿꼿하게 지켜내셨다는 점에서, 당신의 삶으로서 불교정화의 시작과 끝을 오롯하게 드러내셨다"고 회고했다. 생전 월탄 대종사와 인연이 각별했던 이란 여여회 회장 보살도 "저의 공부와 수행에 기름을 부어주신 스승"이라고 회상했다. 이란 보살은 "30년전 가정법회를 진행하며 모신 첫 법사스님이 월탄 대종사로, 교와 선에 치우침이 없으신 선지식이었다"면서 "지역 신도들과 주민들에게도 '산할아버지' 같은 친근한 도인이셨다"고 말했다.

한편 월탄 스님의 2재는 8월 17일, 3재는 8월 24일, 4재는 8월 31일 청주 용화사에서, 5재는 9월 7일 서울 삼천사, 6재는 9월 14일 청주 용화사, 7재는 9월 21일 단양 대흥사에서 봉행된다.

나눔의집 · 사찰 등 집중호우 피해 확인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과 안산 쌍계사 등 사찰피해가 이어졌다.

나눔의집에 따르면 8월 8일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빗물이 거세게 들이쳐 제1역사관 지하 전시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 내 있는 피해 할머니 증언으로 만든 위안소 모형은 완전히 침수되고, 할머니들 증언 영상 시스템과 일본군 군복 등이 빗물에 젖어 훼손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뒤편 축대도 무너져 내려 안전도 위협받는 상태다.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할머니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안산 쌍계사는 배수로가 넘쳐 빗물이 사찰로 유입돼 경내가 침수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성남 봉국사는 전각에 침수가 발생했으며, 강서 미타사는 경내 나무가 넘어졌다. 고양 봉성암은 진입로 토사가 유실돼 8월 9일까지 잠시 고립되기도 했다. '여주 고달사지'도 우측 배수로 면석이 탈락되고 울타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임은호 · 노덕현 기자

중앙종회 5개 종책모임, 진우 스님 지지 선언

8월 9일 공동기자회견 열어
"수행 · 포교 등 검증된 후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진우 스님에 대한 지지를 공식표명해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5개 종책모임은 8월 9일 진우 스님의 후보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강회(회장 호산), 법화회(회장 성행), 무량회(회장 진화), 금강회(회장 보인), 비구니회(회장 상덕)가 함께했으며, 60여명의 중앙종회 의원스님들이 참석했다.<사진>

중앙종회에서 활동하는 종책모임 전부가 한 후보에 대한 공동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후 처음이다. 특히 현재 중앙종회의원 중 5개 종책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지지선언은 사실상 중앙종회 지지표명에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중앙종회 화엄회 · 무량회 · 법화회 · 금강회 · 비구니 종회의원 일동은 이날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에 교육원장을 역임한 진우 스님을 지지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원 스님들은 입장문에서 "앞으로 4년간 종단을 운영할 최고수장인 제37대 총무원장은 수행과 교화를 본분사로 종단 안정과 화합을 도모해 산적한 종단 과제를 해결함은 물론,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국민 화합과 불교중흥,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조계종단은 9월 28일 취임할 제37대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종헌과 종법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스님들은 "그럼에도 과거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난립과 분열, 근거없는 음해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불자와 국민에게 큰 불신과 상처를 주기도 했다"며 "이를 우려해 지난 4일 전국 2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선거로 인한 분열과 비방 등 선거폐단을 우려하며 수행과 포교가 검증된 단일후보가 추대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이에 우리 종책모임은 종단 원로, 중진, 교구본사 주지스님,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진우 스님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들은 "진우 스님은 수행과 포교가 검증되며 종단 발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이력을 가진 공심 있는 후보"라며 "이에 종책모임 중앙종회의원들은 수행과 교화를 본분으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정진해 온 진우 스님이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여법하게 선출돼 종단과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범어사 주지에 보운 스님…"화합 최우선"

원행 스님, 8월 10일 임명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신임주지에 보운 스님이 임명됐다. 앞서 방장 지유 스님은 임회에서 최근 사퇴한 前주지 경선 스님의 후임에 보운 스님<사진>을 지명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운 스님에게 범어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범어사는 부산 뿐 아니라 경상도 전역에 신도층이 넓게 분포된 사찰"이라며 "무엇보다 동산 스님의 드높은 가르침을 계승하는 본사인 만큼 대중 스님들과 잘 화합해서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운 스님은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아 방장 스님을 비롯해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헌종법에 부여된 기준과 원칙을 잘 준수해 화합을 이루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선암사 판결 규탄 성명 잇따라

중앙종회 · 전국승가대 · 대학원
"한국불교의 역사 · 전통 부정"

조계종 중앙종회와 전국승가대학 · 승가대학원 교직자들이 최근 법원의 선암사 판결에 대해 "한국불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8월 3일 '한국불교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60년전 선암사에 거주했던 일부 대처승들이 조계종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승가대학 · 승가대학원 교직자들도 8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황당한 논리로 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순천 선암사의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송지희 기자

제18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거 공고

종헌 제32조 내지 제34조, 제50조, 선거법 제22조,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8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일시 · 장소

2022년 9월 15일(목)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 1층 메따공연장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출 분야

교학 · 수행분야(2명), 포교분야(2명), 복지분야(2명),
행정분야(2명), 사회 · 문화분야(2명)

입후보자 등록 기간

불기 2566년(2022)년 8월 22(월) ~ 8월 24일(수) 오후 5시
(우편접수는 8월 24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입후보자 등록서류

4-1. 종단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1부
- 이력서(소정양식) ····· 1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각 1부
- 종법준수 각서 비구니용(소정양식) ····· 1부
- 투 · 개표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 1부
- 반명함판 사진 ····· 3매

4-2. 전국비구니회 등록서류
- 개인정보공개자료(소정양식) ····· 1부
- 비구니종회의원 서약서(소정양식) ····· 1부
- 지회활동확인서(소정양식) ····· 1부

참고사항

1. 회칙 제40조(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종헌종법에 준하여 종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2. 회칙 제41조(행위제한)에 의하여, 개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중 개인정보공개자료로 선출위원회에서 일괄 홍보한다.
3.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전국비구니회 소임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정지하여야 한다.

접수 및 문의처

서울 강남구 광평로31길 56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
전화 : 02-3411-8103, 010-8248-8103
※등록서류 일체는 전국비구니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입후보자 자격 및 선거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2566(2022)년 8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장

세종시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신도시 포교 새 장

세종=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8월 9일 낙성법회 봉행
백만원력결집불사 두 번째 결실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도 열려

도시 포교 중점 도량으로서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이 8월 9일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 제36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10대 사업 중 하나인 광제사 건립은 행정수도이며 정치 · 사회 및 지리적 중요도시인 세종시에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사찰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 는 의미를 담아 사찰 이름을 직접 명명해 건립 초기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수도권 주요사찰 주지스님 및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주윤식 조계종중앙신도회장, 현대불교신문 구태서 대표, 조계종전국여성불자회 김의정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세종시 최민호 시장, 정관계인사 등 각계 대표인사들도 참석해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을 축하했다.

점안의식 및 봉불식에 이어 봉행된 낙성법회는 집행위원장 삼혜 스님과 불사추진위원회 총도감 현고 스님의 경과보고, 표창패 수여,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봉행사,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법어, 축사, 대웅보전 현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광제사가 동체대비 마음으로 국민이 화합하며 남북이 통일되고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호국애민심을 실천해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호국애민의 전법도량이 되길 바란다"면서 "또한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불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류가 향유하게 해 한국의 불교문화는 널리 전해지고 그 향기가 법계에 가득하게 하라"고 염원했다.


조계종은 8월 9일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행사에서 "백만송이 서원의 꽃으로 우리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어 나아가겠다는 백만원력이 결집해 부처님 성지 부다가야 분황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이곳 세종시 광제사를 장엄하고 있다"며 "한국불교를 사랑하는 소중한 원력이 하나돼 마침내 환희로운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로 이끌어 줬다. 지중하고 소중한 인연에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불사를 위해 힘써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표창패도 수여했다.

종정예하 포상은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총무원장 포상은 정석 대륜건설 감사, 이광복 목운 도편수, 임성안 가람불교조각원 대표, 김쌍동 동방예술원 대표가 수상했다.

낙성법회에 이어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이 봉행됐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가 함께 계획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됐다.

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동환 스님은 "체험관은 어린이, 청소년, 학생, 직장인 등과 가족들이 누구나 재밌고 편안하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주위에 알려 나가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제사는 전월산 일대 약 1만 6000㎡(약 4,840평) 부지에 들어섰다. 대웅보전은 중층 목구조의 317.35㎡(약 96평)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불은 석가모니불, 좌우 협시불로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불을 조성했다.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열린 공간인 전통문화체험관은 5,494.22㎡(1,662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게 명상체험실, 다도 체험실, 사찰음식체험장, 전통문화홍보관, 상설전시장, 미술 · 공예체험실, 주차장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전통사찰의 건축 양식을 재현하면서 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지후보 선출 위한 산중총회 소집 공고

불국사, 9월 6일 개최키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가 9월 6일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불국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산중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9월 6일 오후 1시 경내 무설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을 다룰 것을 공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불국사 주지 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후보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부 · 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했거나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도 인정된다.

겸직금지 대상인 소임을 맡고 있을 경우 8월 24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8월 16일~22일,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8월 28일~30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신안군, 특정종교 성지화 개선 요구 묵살

'1004섬' 모토 기독교 선교사업
비판에도 체험관 건립 등 추진
신안군수 "종교편향 없다" 일관

국민혈세로 특정종교 성지화를 진행해 논란을 야기한 신안군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와 종교평화위원회는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함께 신안군을 현장 방문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신안군 측은 재방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약속은커녕, "종교편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박우량 신안군수를 만나 "종교 편향적 인식 제고와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한 것 뿐"이라며 도리어 "향후 불교 테마섬 순례길 조성 등을 통해 불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마치 불교계 달래기식 모습을 보여 공분을 일으켰다.

신안군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군내 도서에 공적자금으로 기독교 선교사업을 정책으로 채택,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5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1004섬 신안'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십자가와 12사도의 명칭이 달린 예배당을 건립했으며, 기독체험관 및 순교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도 국 · 군비로 책정한 상태다.

조계종은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신안군의 명확한 인식 정리와 참회, 개선을 전제로 추가적인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신안군수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로 신고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정의한 '공직자 행동강령' 을 위반한 점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탄소중립 위한 실천 활동 제안

'저탄소생활 실천안내서'
사찰편 · 불자편 제작배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는 실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명살림을 위한 불자들의 실천 법을 알리는 안내서가 출간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전국 사찰 스님과 불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안내서' 를 제작,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저탄소 생활 실천안내서' 는 '사찰편' 과 '불자편' 으로 나눠 제작됐다. '사찰편' 에서는 사찰 생활 및 법회, 사찰 운영관리, 교육과 캠페인, 불사, 숲과 텃밭조성에 대한 실천지침이 소개돼 있으며 부록으로 기후위기 관련 법문자료와 탄소절감 지원제도가 수록됐다. '불자편' 은 불자들이 각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에너지 및 물질 소비 줄이기, 교통 및 수송, 자원 순환, 탄소흡수원 늘리기 등이다.

두 안내서에는 공통적으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과 불교적 해결방안, 실천사항 체크리스트가 담겼다. 특히 안내서는 콩기름 잉크로 인쇄, 환경보전을 직접 실천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은 백중날 실천안내서를 배포하고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도 무료배포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전환을 주제로 홍보동영상도 제작 중에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10주년 기념식

8월 24일 역사문화기념관서

노동자, 빈곤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사회활동을 실천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조계종 사노위)가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기념식' 을 개최한다.

2012년 8월 27일 노동위원회로 출범한 조계종 사노위는 불교적 방법의 실천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혐오를 없애고 약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실천해 왔다. 2015년 실천위원스님 20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도회와 오체투지, 삼천배 등 불교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행사는 조계종 사노위 10년간의 활동을 축하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모시고 그동안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 KTX여승무원,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10년 활동 영상과 축하 인사 영상,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관내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가 진행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박영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 함께한다.

사진전 '거리의 목탁' 도 8월 21~31일 관내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사진전은 조계종 사노위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현장 모습을 담은 박승화 작가, 이명익 작가, 정택용 작가 등 전문 작가 3명이 촬영한 것으로 10년간 걸어온 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진다.

사회노동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고통을 없애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2)2011-1927

임은호 기자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다연기획'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시방의 평온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방의 스님과 불자님들께
'다연기획'이 힘찬 출발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연기획은' 불교 전문 종합기획사로서
2022년 6월 폐업한 '감로기획'에서
20년~30년간 일해 온 직원들이 다시 만나
설립한 회사입니다.

'다연기획'은
불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알려 주는 **불교 카렌다**
사찰의 각종 행사와 의례의식에 필요한 **행사용품**
각종 카다록과 단행본 및 현수막 등 **홍보용품**
사찰과 신행 단체의 **행사 기획 및 대행**
분야에서 일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사찰의 행사와 전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사찰의 발전과 불자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여름
다연기획 임직원 일동

도서출판 다연기획 Tel 02)723-4301 Fax 02)723-4303

平 최대 불교영화제, '세계일화영화제' 25일 개막

8월 28일까지 3박 4일간 119개 작품 선보여

개막작 '오늘 출가합니다' 비롯
폐막작 '길위에서 길을묻다' 등
총 6개 섹션, 32개국 영화 상영
3000여 관객 몰이 주최측 예상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1년 아시아 최대 불교영화제로 출범한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2022년 8월 25일 더욱 풍성해진 영화로 불자들을 찾아왔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8월 8일 동국대 영상대학원 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서 제2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OIB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Re: Orignal'을 테마로 문명사적 위기에 처한 현시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불교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방점을 뒀다.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에서 선보이는 영화들은 영화제 공모사이트 Filmfreeway 및 불교국가 대사관 등과 연계해 선정한 32개국 119편으로 이중 35편이 장편영화다.

영화 상영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연꽃' △스님을 소재로 한 '라일락' △불교가르침을 담은 일반 대중작품인 '동백' △현대사회의 공존과 조화 사상을 담은 '수선화' △특별전 및 기획전 △2022청소년영화캠프 등 6개 섹션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8월 25일 오후 5시 상영되는 개막작은 김성환 감독의 '오늘출가합니다'로 이혼한 한 현대인인 주인공이 친구와 사찰에서 나이와 이혼 경력으로 출가를 거부당하고 겪는 출가기를 주 내용으로 한다.

8월 28일 오후 6시 상영되는 폐막작 '길위에서 길을 묻다'는 신동만 감독이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과정을 다큐로 남은 작품이다.

특별전에서는 구담 스님 등 스님들이 연출한 영화를 선보이는 '수행자의 렌즈', 동국대 출신 영화인들이 구성한 '동국쇼케이스', 단편콜렉션 및 청소년들이 영화 기획, 연출한 '청소년영화캠프 상영회' 등도 진행된다.

이번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추천작으로는 '출발', '영혼의 순례길', '남매의 여름밤', '해피니스', '이너차일드' 등이 꼽힌다.

'출발'은 락커에서 전향하여 자살상담으로 유명해진 스님이 화두참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전미비평가위원회 선정 2022년 5대 다큐멘터리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영혼의 순례길'은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11명이 성지순례에 나서며 1년간 2500km를 걷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2016년 워싱턴DC국제영화제 수상작이다.

'남매의 여름밤'은 남매가 고모와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겪는 특별한 여름방학 이야기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을 포함한 4관왕을 달성했다.

'해피니스'는 부탄 오지의 어린 승려가 현대문명을 접하며 겪게 되는 변화를 그려내며 2014년 선댄스영화제 촬영상을 수상했다.

'이너차일드'는 일상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를 버려야 했던 소년의 복잡한 감정을 담아낸 장편영화로 2022년 첫 선을 보였다.

이번 2회 영화제는 1회보다 많은 기간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쳤다. 12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이 접수되어 수개월간 심사를 거쳐 최종 상영작이 결정됐다.

차승대 집행위원장은 "수많은 작품들을 보며 매년 영화제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며 "불모지였던 아시아불교영화제 분야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많은 관객들이 보고 불교 영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최단체인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주윤식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지난해 시작한 국제불교영화제가 2회째를 맞았다. 국제영화제는 전법포교의 차원에서 불교영화를 통한 불교문화 인식 확대로 무료로 진행된다"며 "이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아트로 장엄된 학교법당 보셨나요

동대부여중 디지털법당
'상 · 상법당' 개원

8월 11일 연화당서 점안법회
건학위 '법당 리모델링' 일환
미디어아트 후불탱으로 장엄
"디지털 법당, 새 변화 계기"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8월 11일 동대부여중 2층 연화당에서 '상 · 상법당'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종립학교 법당 후불탱화가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법당 불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8월 11일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교장 전정란, 이하 동대부여중) 2층 연화당에서 '상 · 상법당, 가상이 이끄는 명상의 세계(이하 상 · 상법당)'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위원장 돈관 스님, 전정란 동대부여중 교장, 지정학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동대부여중의 '상 · 상법당'은 어린이용 맞춤 불화를 설치한 은석초등학교 법당에 이은 두 번째 개편으로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로 주목받는 서동주 작가가 참여했다.

디지털 시대 21세기형 법당을 지향하는 '상 · 상법당'은 기존 불상 뒤에 자리하고 있던 전통 형식의 탱화 대신 고해상도 LED 스크린을 설치해 미디어 영상작품들이 불상과 적절한 조명이 어우러져 상영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전통 · 미래 △종교(사상) · 기술(혁신) △정적임 · 동적임 등 상반되는 개념들을 융합적으로 구현했다.

'상 · 상법당'은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특별선서화전 수익금 일부로 마련된 재원으로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8개 초 · 중 · 고교의 법당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종교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불교 역시 현대사회에 맞게 디지털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디지털 법당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정란 교장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맞춤형 법회와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 · 상 법당'의 개원과 함께 구축된 미디어 인프라는 향후 학생들의 참여로 제작되는 컨텐츠로 채워지는 등 다양한 교육목적으로 활용된다. 동대부여중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상 · 상 법당'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심리 명상 프로그램도 활발히 제작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세계유산 부석사서 '명무' 펼쳐진다

문화재청, 세계유산축전 개막
9월 영주 부석사 등서 개최
안무가 안은미 새 작품 선봬
수원 화성 · 제주서 10월 진행



8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은미 안무가가 세계유산축전 기간에 선보일 '부석사 명무전 기특기특'을 선보이고 있다.

올 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천년고찰인 영주 부석사가 명무(名舞)로 장엄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9~10월 경북 안동과 영주, 수원, 제주에서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제3회 2022년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9월 3일에 개막하는 첫 축전은 '이동하는 유산(World Heritage in Transit)'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세계유산축전-경상북도'이다. 올해 축전은 하회마을과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그리고 부석사와 봉정사에서 열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주 부석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이다. 9월 10일과 11일 오후 1시에는 세계적 안무가 안은미가 펼치는 현대무용극 '부석사 명무전 기특기특'이 진행된다. 안은미 안무가는 "경북 영주가 고향이기도 하고, 부석사의 건축물과 조각을 무척 좋아한다"며 "세계유산인 부석사에 사람의 숨결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석사에서는 매체예술전(미디어아트전) '감개무량'(9월 3~25일 오전 10시)과 산사음악회(9월 17일 오후 7시) 등이 진행된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세계유산축전 주제관'과 유휴 고택에서 국내외 유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전시가 열리며, 세계문화유산인 유교 서원들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축전에서는 안동과 영주 일대의 각 세계유산에 깃든 불교, 유교 등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주된 주제"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사회聯, '다종교 현상과 종교 공존' 학술대회

8월 22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이창익 한신대 교수 등 발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8월 2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다종교 현상과 종교 공존'을 주제로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불교 전통 성지에 대한 국민적 재인식 작업과 함께 다종교 상황 속에서 여러 종교들이 공존의 지혜를 발휘했던 역사적 사례를 찾고 이에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종교 탄압에 대한 여러 관점, 근대 세속주의 사회에서 공공성과 신앙의 공존 문제, 종교 전파 시 발생하는 문화적 긴장 관계,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치 충돌의 문제, 종교 탄압이 야기한 종교인의 망명 사례 등을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후 쟁점화된 부분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종교 탄압에 대한 제 관점 : '박해'와 '성인'을 중심으로 (이창익/ 한신대 교수), △공공성과 신앙 : 성지화와 성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용복/ 아시아종교연구원장), △종교의 전파와 문화적 긴장 : 동아시아의 불교 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욱/ 고려대 교수), △신앙과 충(忠)의 혼재 : '황사영 백서 사건'을 다시 보다 (이종우/ 상지대 교수), △남송의 선승 난계도륭(蘭溪道隆)이 중세 일본에 이식한 선에 대한 고찰 (김성순/ 전남대 교수)이 발표된다.

지정토론은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문광 스님, 조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오용석 원광대 교수가 맡았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진행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와신상담' 금강대, 제2건학 나선다

개편안 발표…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 추진

'인문사회적 인재' 양성 목표
'프리마나 학부' 단일 체제로
불교, 행정, 사복은 전문 과정

지난해 대학역량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해제된 금강대가 학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제2건학을 선언했다. 금강대를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강대(총장 정용덕)는 8월 11일 본관 대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발전을 위한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강대는 불교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나로 묶어 '프라마나(Pramana) 학부' 단일학부 체제로 학제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배우는 폭넓은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 생각의 틀을 깨고, 자유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교양을 쌓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미국의 세인트존스칼리지, 일본의 아키타 국제교양대학 등이 성공적인 사례다.

'프리마나 학부'는 동 · 서양 고전 100권 읽기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 중심의 주전공과 함께 불교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생 선택형 커리어 개발 전문과정을 설치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춰 전문과정을 복수 전공할 수 있다.

금강대는 고전 독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학능력의 함양을 위해 한문 · 산스크리트어 · 티베트어 등 고전 랭귀지 스쿨도 함께 운영 예정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3튜더 제도'도 마련됐다. 학사, 진로, 역량개발 등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3튜더 제도'는 총괄 튜더 1인과 함께 Pro-tutor(교원), Adm-tutor(행정), Edu-tutor(비교과)로 구성된다.

금강대는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금강대는 2023년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지방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학제 개편으로 변화하는 금강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인사 영입

8월 4일 교원 임용장 수여식
한국음악과 내년 신설돼 운영
박범훈 · 김성녀 등 15명 초빙

내년 신설되는 동국대 한국음악과에 인간문화재급 저명인사들이 대거 교수로 임용됐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8월 4일 서울 한국의 집 취선관에서 '한국음악과 교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곽채기 교무부총장 등 학교 측 인사와 박범훈 석좌교수를 비롯해 한국음악과 교수진이 함께 했다.

동국대는 사회현장의 수요와 졸업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인사를 대거 교수로 위촉했다. 교수진으로는 △박범훈 석좌교수(前 중앙대 총장) △김성녀 석좌교수(前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영재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보유자) △최경만 특임교수(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보유자 및 보존회장) △이춘희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안숙선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덕수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이수자(반주가락)) △강정숙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김해숙 대우교수(前 국립국악원 원장) △김영길 대우교수(前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윤소희 대우교수(現 불교음악원 한국불교음악학회 학술위원장) △황호준 대우교수(KBS국악대상 작곡상 수상자) △원완철 대우교수(前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 △최수정 대우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박애리 대우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등 15명이다.

윤성이 총장은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분들을 우리 대학 교수로 초빙할 수 있게 돼 영광이며 자랑스럽다"며 "교수님들이 합심해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음악과로 만들어 달라. 학교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교수들을 대표해 박범훈 석좌교수는 "이번에 임용된 한국음악과 교수진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라며 "유능한 분들과 함께하여 세계적인 학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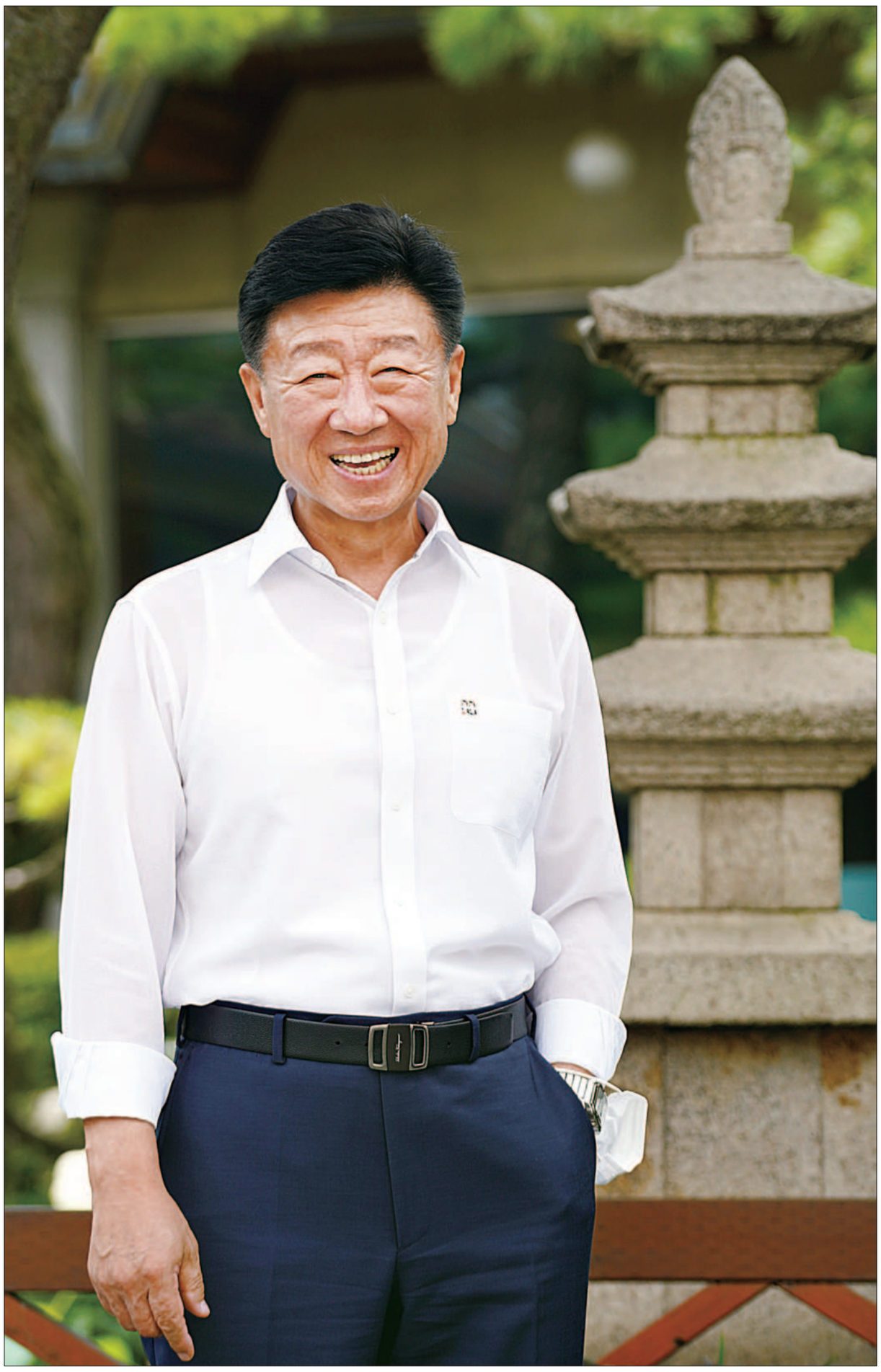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몸 녹초되어도 관세음보살 외치면 웃음 절로”

Interview

고 대 영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 대표
(숭의가든 대표)

대담=김주일 국장/정리 · 사진=노덕현 기자



8월 10일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고대영 대표는 사진으로 봤을 때와 사뭇 달랐다. 고 대표를 처음보면 입체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죠, 머”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에게서 삶의 풍파를 겪은 만큼 능수능란하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원숙함이 읽힌다.

인천불교의 살림꾼, 대소사 맡아

7월 19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숭의가든’에는 인천불교를 이끄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년간 인천불교를 이끌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인천지역은 한국불교에서 이른바 아픈 손가락으로 불린다. 개화기 기독교계가 선교활동을 가장 빠르게 펼친 곳이기도 하려니와 사찰이 많지 않은 도서지역이 있어 불교세가 가장 약하다. 여기에 불교 내적으로는 다양한 종단이 섞여 있어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끌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래전 종단간 갈등으로 양분사태를 겪기도 했던 만큼 매번 총연합회장 선출은 외줄타기와 같은 심정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이날 32대 총연합회 회장 선출은 태고종 인천종무원장 능해 스님을 추대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이뤄졌다.

어째서일까. 박수 속에서 선출된 능해 스님을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본 인물. 스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인천불교의 살림꾼 고대영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 대표(숭의가든 대표 · 66)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인천지역은 불교세가 극도로 약한 지역이다. 4000여 교회에 비해 250여 사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을 비롯한 군소종단까지 다양한 종단이 활동하고 있다. 약한 교세로 각 사찰의 신도 수도 여타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런 지역불교 상황에서 불교활동가들 모임인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의 존재는 든든한 외호를 맡고 있다.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은 2018년 출범 이후 나눔과 복지활동, 명상강좌 등 전법포교 뿐만 아니라 지역내 종교편향, 환경 등 사회문제까지 아우르는 연대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오랜 지역 토박이로 지역경제계 뿐만 아니라 정관계까지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고대영 대표의 역할이 컸다.

백화점 여러 곳에 매장을 낼 만큼 국내 유명한 요식업체인 ‘숭의가든’을 이끄는 대표임에도 대화하는 시간 대부분이 불교에 대한 노력, 인천불교 발전에 대한 부담과 각오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됐다.

간절한 마음, 불심으로 싹트다

고 대표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동생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고 대표의 부모님은 북한 황해도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강화교동도로 피난을 와 고 대표를 낳았다. 먹을 것조차 부족했던 그 시절, 고 대표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사랑하던 여동생이 결핵을 앓으면서다.

“여동생이 둘 있었어요. 여섯 살이던 막내여동생이 결핵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후 바로 아래 여동생이 결핵을 앓았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이었어요. 막내 여동생은 저도 어려서 뭘 몰랐고, 남은 여동생을 살리고 싶은데 어린 촌놈이 아는게 있어야죠. 그래서 병문안을 온 어른들이 기도라도 많이 하라고 말해준 관음보살 칭명염불이 불교를 알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고 대표는 당시 불교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저 여동생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관세음보살을 염호했다. 달리 의지할 데도 없었다. 그만큼 간절했지만, 수개월 후 둘째 여동생도 세상을 떠났다.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인 만큼 불교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마음의 의지처가 없어진 고 대표의 학창시절은 질풍노도의 방황기였다.

고 대표는 “절망과 분노만 남은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도 포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께는 여동생 하나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라고 원망만 했죠”라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꿈에 동생의 눈코입으로 흙과 빗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강화 교동도에는 찾아갈만한 절이나 스님이 없었다. 삶의 혼돈에 대해, 인간의 생사고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도와 염불은 자연스럽게 화두로 이어졌다. ‘내 동생이 간 곳은 어디며, 아프고 죽는건 무엇일까?’ 였다.

학창시절 관음기도로 마음 의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도 고 대표는 관음기도만은 매일 빼먹지 않았다. 이런 기도의 가피는 군입대 후 자대배치에서 발현된다. ‘보안부대’에 가고 싶었던 고 대표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동안에도 마음 속으로는 염호를 했다. 취침시간 때에도 교관들한테 사정하여 복도 한 귀퉁이에서 1시간씩 기도를 올릴 정도였다. 그 때문일까. 실제로 자대배치 받기 10일 전 보안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은 용인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인천으로 배치 받고 싶어서 다시 또 기도를 했죠. 내무반에서 기도하면 고참들 눈에 띄고 하니 연병장 한가운데 앉아서 기도를 매일 1시간씩 했는데, 3개월 만에 인천으로 다시 재배치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도의 힘이란 무엇인가, 이런 원리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오묘한 세계에 대한 의문과 갈증은 불교공부에 더 매진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날때면 수많은 사찰과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문답을 가졌지만 불행하게도 원론적인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다.

제대 후 25세 때 고 대표는 부천에서 스프링을 제조하는 원강기업을 창업했다. 공장일로 바쁘던 1990년 고 대표는 BBS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던 ‘고승열전’을 접하며 기도 뿐만 아니라 수행이라는게 무엇인지, 실천이라는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다. 불심은 깊어졌지만, 대외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젊은 패기로 시작했지만 경험이 부족한 터라 사업체가 점점 기울었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야 말았다.

불교계 약한 인천지역서 외호
불자리더 모아 시민연합 구성
총연합회 등 지역 민원 해결사

어릴적부터 놀던 인천 연안부두가를 거닐다가 회센터에 서울서 온 손님들이 벗어놓은 구두들을 보았다. “사업을 하든 구두를 닦든 귀천이 있습니까.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닦았는데 장인어른을 비롯한 지인들은 창피해 하셨어요. 그래도 밤마다 기도를 하며 다잡은 마음이 있으니 독하게 했죠.”

조금 상황이 나아지나 싶더니 얼마안돼 주변 경쟁업자들이 구청에 고발장을 넣어서 쫓겨났다. 스물 여섯살 나이로 안양까지 흘러온 고 대표는



중 1때 여동생 간호하며 발심
사업실패를 불심으로 극복해
불자 역량 발휘에 ‘공심’ 강조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모아 안양에서 최초로 극장식 스탠드바를 열었지만 성업은 잠시, 민정당 반대시위 여파로 건물이 불에 타며 이 또한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이듬해 친구의 도움으로 미국 헬스용품 업체 하청회사도 차렸지만, 본사가 도산이 나며 부도 처리됐다.

“인생이 절망적이었어요. 나이는 젊었지만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당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또 문 닫았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 8시면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공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찰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시 기운을 차린 고 대표는 스물아홉 나이로 자동차 중고 매매를 시작했고, 5년간 열심히 일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의 ‘숭의가든’을 1991년 창업했다.

고 대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크게 가니까 마음고생이 그만큼 컸다”며 “그러나 마음고생이 큰 만큼 수행이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숭의가든을 운영하며 IMF를 겪고, 리먼사태도 겪었다. 광우병 사태에 메르스,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역경이 계속됐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당 경영을 꼼꼼히 하고 손님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챙겼다. 조리되는 밑반찬 하나 하나 점검하고 소홀함이 없게 했다.

“모든게 부처님 법 하나에 의지를 할 수 밖에 없었죠. 거기에 의지하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야죠. 주차장에서 주차일을 하면서 땀이 줄줄나고 몸이 녹초가 되어도 마음 속으로 관세음보살 합니다. 그리고 나면 웃는 얼굴로 ‘어서 오세요’란 말이 저절로 나와요.”

포행 중 마음 실체 엿본뒤 수행 공간 열어

2016년 고 대표는 새벽에 월미도 월미공원에서 포행을 하던 중에 불심의 근간이 된 그 간절한 마음의 실체를 맛보게 됐다.

“평생 끄달린 걸 그제야 보게 된거죠. 눈 가진 사람이 자기 눈을 보겠다고 한거였죠. 인과에 따른 것인데 그제서야 직시하게 됐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서 일까. 불교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솟아났다. 고 대표는 그 해 숭의가든 인근 건물에 스터디와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사띠’ 스터디를 구성했다. 지도법사로는 현재 인도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을 모셨다.

인천에서는 불교 공부를 하는 모임이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매월 1회 씩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고, 매주 월요일 스터디가 진행됐다. 현재는 붓다팔라 스님이 인도 분황사 업무로 자주오지 못하지만 내년쯤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마음수행의 대가인 김홍근 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강의를 매달 진행하고 있으며, 화요일이면 일반인을 위한 명리학 강좌도 진행된다.

불심 깊은 실업인이 있다는 소식에 인근 사찰 스님들과의 인연도 쌓여만 갔다. 강화 전등사나 약사사 등 지역사찰과의 다양한 인연이 생겼다. 지역 정관계와도 인연을 쌓은 고 대표는 자연스럽게 사찰과 스님들의 민원처리도 돕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무원불자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9년 숭의가든과 사무실이 있는 미추홀구부터 고 대표는 공무원불자회 구성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현실은 충격이었다. 불교세가 너무 약하다보니 불자 공무원들이 차별받을까 불자회 구성을 만류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전법 포교는 더욱 요원하다는 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시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희재 동아일보 취재본부장 등 친분이 있는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지역에서 역량있는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으고 싶다는 열망에서였어요. 다행히 뜻이 모여 약 100여 명의 인천지역 불자들을 규합해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을 꾸리게 됐습니다.” 교세가 약한 인천지역에서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량을 모으는 단체가 생겼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있다.

인천불교 화합에 보람, 새 중흥 꿈꾸다

고 대표는 그동안의 활동 중 가장 보람 있던 일로 2010년 인천불교총연합회가 통합된 것을 꼽았다. “분열됐을 당시에는 인천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거의 못받았습니다. 이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쪽에서 눈치주고, 저쪽에서 사업 진행하면 이쪽에서 눈치주고, 될 일도 안되는 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아에 불교를 우습게 알았죠. 점점 불교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게 느껴졌습니다.”

조계종과 타종단 사이에서 자유로운 고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을 오가는 이른바 ‘거간꾼’ 역할을 자임했다. 각 종단 스님들 간의 입장이 달랐기에 사정에 맞는 설득 과정은 인내심을 필요로 했다. 또한 양 연합회의 독자운영 과정에서 쌓인 부채 해결에도 고 대표는 공심을 갖고 지역불교를 위해 희사했다.

이러한 고 대표의 중심고리 역할로, 이후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선출 등 인천지역 불교계 대소사 논의나 사찰의 당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연대가 생겨났다. 지금은 휴간중인 인천불교신문 창간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모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있기에 그만큼 역량도 결집되지만, 사람이 모인 만큼 잡음도 나오기 마련. 특히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활용가치가 높아질수록, 이를 사유화하거나 개인의 영달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기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다시 모임은 깨진다.

통합 후 10여년이 흘렀지만, 고 대표는 아직도 통합의 초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종단 배분 등의 원칙을 지키며 원만 화합하는 것이 바탕이 될 때 지역불심도 살아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각 지역에 보면 역량이 있는 재가불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한데 모여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모임의 중심이 ‘공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 대표는 앞으로도 인천불교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원력을 갖고 있다.

“못났던 놈이 ‘불교’라는 걸 만나서 이렇게까지 성찰이라는 것도 하고 살게 됐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돕는 역할을 하며 인천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이 환희라 제불이 찬탄하니 국토의 경사”

꽃은 붉고 향소리 그윽하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不聞聞自性하고
不見見眞心이라
心性都忘處에
虛明水月臨이로다

듣지 않으면서 성품을 듣고
보지 않으면서 참마음을 본다
마음과 성품 모두 잊은 곳
텅 비고 맑아 달이 물에 비치네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던 선원대중이 하안거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도다.

오직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는 선방에 폭염은 오히려 서늘했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불게 피었으며 무풍한송은 그 향기 더욱 그윽하게 되었도다.

안거가 여법하게 시행되고 화두참구의 수행가풍으로 정진하는 종단의 수행전통은 참으로 수승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이로다.

종문(宗門)의 수행자들이 정법안(正法眼)을 갖추었으니 제천(諸天)이 환희하고 제불이 찬탄하시니 이는 국토의 경사로다.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북통 같은 큰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이에게 어떤 향기를 전해줄 수 있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분쟁이 쉬지 않는 세상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이며,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간절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걸음걸음은 바른 법이 활용되도록 하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되게 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

영축산의 소식을 아는가?
꽃은 붉고 향소리 그윽하다 말하리라.

水上泥牛耕月色하고
雲中木馬掣風光이로다
威音古調虛空骨이요
孤鶴一聲天外長이로다

물 위 진흙소는 달빛을 갈고
구름 속 목마는 풍광을 끌고 간다.
위음왕 옛 곡조는 허공의 골격이요
외로운 학의 소리 허공 밖에 길어라.

다리 아래 두자 석자 됨을 아는가

팔공총림 방장 진제 대종사



順水使船猶自可어니와
逆風把柁世間稀라.
雖然好箇擔板漢이나
到頭未免落便宜로다.
什麽人 恁麽來오?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움은 오히려 쉬움이나
바람을 거슬러 키(柁)를 잡음은 세간에 드물이라.
비록 이 좋은 담판한(擔板漢)이나
마침내 편의(便宜)에 떨어짐을 면치 못함이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옴인고?

금일은 임인년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산문을 폐쇄하고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석 달 동안 앉아 정진하는데도 화두가 순일(純一)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화두를 챙기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의 번뇌망상과 혼침으로 시간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전생의 모든 업장의 습기가 태산처럼 높고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어닥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업식이 마음가운데 자리잡고 주인노릇을 하여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부처님의 대도(大道)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부는 한 번의 발심이나 얕은 신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게으른 생각이나 방일한 생활을 떠나 매일 매일, 시시각각으로 발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또 다져야 할 것이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자나 깨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여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라.

萬仞峯頭坐하여
呵佛罵祖나
脚下數三尺을 會也麽?

만 길이나 되는 높은 산봉우리에 앉아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음이나 다리 아래 두 자, 석 자가 됨을 아느냐?

명안 납승은 깨달음으로 법칙 삼느니라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



광동성 소주(韶州)땅 운문산(雲門山)의 문언(文偃)선사는 주장자를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주장자가 용이 되어 건곤을 삼켰거늘 산하대지는 어디에서 생겼단 말인가?”

대중들은 묵연히 듣고만 있을 뿐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뒷날 장로자각종색(長蘆慈覺宗賾) 선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주장자는 다만 나무 일 뿐이다. 용으로 변한 적도 없고 건곤을 삼킨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이 종문(宗門)을 개창한 이래로 결제를 마친 선가의 운수납자들은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서 풀을 헤치며 지팡이를 주장자 삼아 한 걸음 한걸음 옮기면서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다녔습니다. 가는 회상(會上)마다 어김없이 법상에는 수많은 명안종사들의 주장자 법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풍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덕산선감 선사에게 주장자는 방(棒)이 되었고 또 주장자는 천변만화(千變萬化)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때로는 납자를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납자들의 눈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운문선사와 종색선사처럼 서로의 안목을 내보이는 법 거량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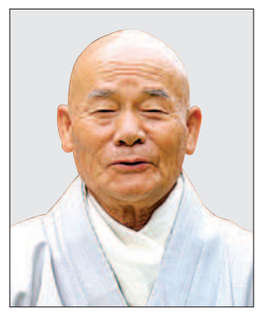
한여름 열기 속에서 어느새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 때에는 선원에 남아서 정진하거나 산문 밖을 나가 선지식이나 도반을 찾고 처소를 가려 자유스러운 가운데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할 수가 있습니다. 제불조사(諸佛祖師)가 옛날에는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이미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않을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을 잘하도록 합시다.

四聖六凡以佛爲極이나.
明眼衲僧以悟爲則이니라.

성현과 범부는 부처로써 극칙을 삼지만 명안납승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느니라.

해제는 만행, 공부 양식은 보살행

덕숭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천안대비로도 뚫어볼 수 없는 것이 바람을 따라 비가 되어 앞산을 지나간다. 졸지마라! 조는 것이 법문이라면 재상 딸이 백정 집에 시집가는 꼴이다. 천년 竹 만년 松이여! 가지마다 잎새마다 지지엽엽이 모두 다 한가지로 같구나. 참선을 아는 四海玄學者에게 말한다. 動手無非觸祖翁. 손발 움직임이 무한청풍 맑은 바람 祖師家風 아닌 것이 없네!

만공스님 법문입니다.

보고 듣고 알 수 없다. 이 뭘까? 화두가 제자리니 지수화풍이 제자리다. 身心이 골라져 무장해제라, 바람이 부드럽다. 만고에 바다를 걸으니 발이 물이라, 그래서 滿足인가? 누려도 가볍기만 하니 그래서 洽足인가? 출렁출렁 파도치니 과연 充足이로다.

경허스님은 연암 산 아래 길에 들사람 일없어 무사태평가라 했다. 앉은 자리가 더 이상 높을 것이 없으니 다 보인다. 깊어 흔적이 없고 찌꺼기가 없으니 순간순간 시작이요, 출발이다. ‘그때그때 맞게’ 가 是曰 中道바람이다.

보이면 범할 수가 없다. 불덩어리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 소상히 드러나는데 헛디딜 일이 없다. 아닌 길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한다.

낮춰서 비워서 겸허하게 대중에게 도움이 되자. 大衆이 부처님이다. 활짝 열지 못해서 도움이 될 여유가 없으면 미끄러진다. 길은 언제나 환하게 뚫려있다. 몸도 마음도 호흡도 길이다. 시원시원하게 열려있는 길이다. 길은 무리가 없다. 억지가 없다. 힘들어도 無事太平歌라. 길에서 울려오는 바람, 그 바람이 산천을 숨 쉬게 한다.

해제는 만행이다. 마하반야바라밀! 놀라 터져 나오는 감탄의 외마디 마하! 내가 감동한 곱 곱으로 생명들을 감동시키자. 통풍시키자.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이 공부 양식은 보살행이다. 핏기 있을 때 몰아붙이자.

이뭘까? 고불이요, 태어나기 전이다.
서리어 한 모양으로 둥그렇네.
석가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섭이 어떻게 능히 전한다고 하느냐
나무아미타불!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27법난 추념

전국승려문예공모전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라는 미명하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을 급습하여 스님 및 불교계 인사들과 민간인 관계자들을 강제연행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하였고 신성한 법당을 짓밟는 등 불교계를 강제로 탄압을 하였습니다. 명분은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전국승려문예공모전의 취지

10·27법난이 발발한지 42년이 지났지만 아픈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듯이, 10·27법난 역시 그 고통과 슬픔을 겪은 스님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상 그저 옛날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처절하고 아픈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출가자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예작품을 통해 10·27법난피해에 대한 치유와 종교적 평화정신을 널리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제
- 10.27법난의 진실,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 확산 등
- 종교적 평화정신의 고취

공모일정 : 5월 25일 ~ 8월 19일
공모대상 : 스님(학인스님 포함)
공모부문 : 시(3편 이내) / 산문 (1편 이상)
제출규격 : 시 산문 모두 ‘한글’ 파일작성(제목 15p, 본문 11p)
제 출 량 : 시 자율 / 산문 A4 2페이지 이상
시상자 발표 : 9월 초(예정)
시 상 식 : 10.27법난 추념법회 중 진행예정
참고자료 : YouTube 10.27법난
시상내역(16편 / 15,000,000원 상금)

구분	시 상 수	부 상	총상금
대 상	2편(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4편(부문별 각 2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400만원
장려상	10편(부문별 각 5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500만원

접수방법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8)
접수방법 :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www.ibulgyo.com)
• 우편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전국승려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주의사항
- 홈페이지 접수 시 시·산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합니다.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응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3회 전통문화사진공모전 김용대 作 ‘규봉암의 봄’

심리상담사 국가인증 법안 대책 마련해야

심리상담사 국가인증 법안 추진
전공으로 제한, 민간자격증 위법
불교계 심리상담 활동 중단해야
법제화 전 불교계 대책마련 시급

한국불교상담학회, 관련 간담회서
교계 입장 대변·종교분과 참석해
"종교 심리치유 특수성 인정해야"
"기존 심리상담 구제 방안 있어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국가가 인증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불교계 심리상담 관련기간과 학회들이 위법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불교상담학회는 지난 8월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담회에 참석해 종교분과의 의견 조율에 참여했다. 간담회는 심리서비스 개념, 범위와 영역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성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심리상담관련단체협의회 소속 종교분과인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카톨릭상담학회가 참여해 종교가 가진 심리상담 분야의 특별성을 강조하며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추진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4일에는 정의당도 '상담사법안' 을 발의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법안은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어 국가시험 제도로 자격을 부여해 상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입법연구가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 심리상담사 활동은 자격증 남발로 인해 자격미달의 상담사들이 양산되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번 법안 추진의 명분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 및 명상상담센터는 '불법기관' 이 될 수밖에 없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한 전법과 포교활동 자체가 '위법' 으로 몰려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법안의 심리상담 관련 국가시험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한국불교상담학회는 8월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심리상담사 자격 국가인증 법안과 관련해 종교분과의 의견 조율에 참여했다. 사진은 풍경소리의 명상심리 지도사 2급 과정 교육 현장 모습.

대학 · 대학원에서 상담학 ·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심리사 자격 취득 요건과 관련해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 대학이나 교육부 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심리상담사 시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양규 회장은 먼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발의로 인해 불교계 상담활동이 위축되고 불법화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안 회장은 "불교계 상담사를 비롯한 현재 상담사들을 고려해 법안이 제정되어한다. 특히 종교분과 심리상담은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상담 범주가 포함되기에 구분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종교가 가진 심리 치유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며 손쉽게 대중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드시 불교계를 비롯한 기존 상담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상담 관련 대학교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에서 시행하는 취득과정은 현실성이 있다. 모델로 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취득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종단과 불교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술대회를 열어 사안의 중요성을 알려 불교계 상담기관과 종단에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무엇보다 종단 차원의 대책과 불교계 자체의 법안 발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교계 심리상담 자격취득자는 불교상담개발원의 불교상담심리사 535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이다.

부산 자비암, 이웃돕기 성품 전달

마스크 3500매 양말 5000개



부산 마안산 자비암(주지 자관)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청에서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자비암은 전달식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마스크 3500매와 양말 5000켤레를 기탁했다. 성품은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며 몸이 불편한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달된다.

주지 자관 스님은 "무더운 여름철이라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며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더워도 코로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품을 지원해주신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과 신도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내의 거동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대광명전서 '물감그릇' 발견

후불벽 기둥 상부 주두서 발견돼
채색 후 잊고 내려온 것으로 추정
전통 안료 그대로 굳은 채로 발견
안료·조색방법 등 연구 가치 있어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대광명전에서 조선시대 후기 백자 분청 채기(彩器, 물감그릇)가 발견됐다.〈사진〉 이번에 발견된 채기는 경주 안압지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이며, 전통 안료가 그대로 굳은 채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8월 9일 통도사 종무소 및 대광명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기가 가진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했다.

채기는 대광명전 후불벽 기둥 상부 주두에 얹혀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통도사는 현재 시행 중인 단청기록화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통도사 단청기록화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구본능 도화원 대표가 최초 발견했다. 구 대표는 "단청 작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진행한다. 처음에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두었다가 채색 후에 깜빡하고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장 송천 스님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단청용 채색을 통해 중수 당시의 단청에 사용된 안료와 조색방법, 물감의 사용방법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그릇 자체만으로도 통도사가 위치한 양산지역의 조선 후기 유행한 도자기 유형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채색 그릇에 남아 있는 잔존 물감이 지금 벽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똑같으며 원소기호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통도사는 발견 직후 전문기관을 통해 채기 속의 안료 성분이 대광명전 단청 안료와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다. 채기의 크기는 직경 15cm, 높이 7.5cm, 굽의 직경이 5.5cm로 조선 후기 백자분청사발에 속하며, 조선 후기 막사발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채기에 담겨 있는 안료를 통해 대광명전 중수 당시의 단청에 사용된 안료와 조색방법, 물감의 사용방법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채기가 발견된 통도사 대광명전은 통도사 중로전의 중심 전각이며 보물로 지정되어있다. 〈통도사약지〉에 의하면 창건 당시부터 있었던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의 건물은 〈통도사지〉에 기록된 〈기묘년개금탱화단확사시주기〉에 전내의 후불탱화와 단청, 본존불의 개금이 1759년에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1759년 직전에 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청은 175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뤄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릇의 상태가 완형으로 양호하고 1759년이라는 절대연도를 가지고 있어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부산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

양 기관 주요사업 협력 약정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8월 4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 · 자살예방 캠페인 ·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 업무협약식' 을 개최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살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등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주요사업에 동참하고 장소 협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날 개금종



합사회복지관 직원 20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해 의미를 더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앞으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지원하는 소외계층의 난치병 환우 돕기 치료비 지원을 약정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양 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 불교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많은 불교복지기관들이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의 생명 존중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문화대상 후보 모집

마감 10월 30일, 시상 12월 4일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영축문화대상 시상 부문은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각 1명이며 각 부분별로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추천 후보는 국적,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종교에 구분이 없으며, 해당 분야에 수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단체), 동종의 공적으로 정부 관련 포상을 받은 경우 5년 이상 경과한 자(단체), 승려일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제한한다.

추천권자는 소속기관, 기업(단체)대표, 대학 학과장, 후원(봉사)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사찰 주지 또는 기관장이다. 후보자 추천 서식은 영축문화재단과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우편 접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24로 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12월 1일 교계언론에 게재하고 개별통지한다. 시상식은 12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 대종사 열반 제19주기 추모다례재 후 진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영축총림 초청 승보공양



정법사 신도대표가 8월 5일 통도사 대중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리고 있다.

8월 5일 2층 만불전에서 봉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는 불교 사대명절인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진리의 공양을 베푸는 49일 지장기도 및 7재 천도재일 법회를 8월 5일 2층 만불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혜남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율원 승가대학 학인 스님, 정법사 사부대중이 참여했으며, 스님 31명에게 승보공양이 이뤄졌다.

7재 천도재일 법회는 6월 25일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초재 7월 1일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 초청법문, 3재 7월 15일 월정사 자현 스님(붓다로드) 초청법문, 5재 7월 29일 분다리카합창단 음성공양, 7재 통도사 대중초청 승보공양 등으로 진행된 바 있다.

회향법회서는 타종 5타를 시작으로 주지 광우 스님 향공양, 신도회, 영축다도회, 분다리카합창단 장삼승보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주지 광우 스님인사, 영축총림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격려사, 사홍서원, 영단시식, 사부대중과 영축총림 율원스님들이 함께 하는 〈금강경독송기도〉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승보공양에는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율원장 덕문 스님, 한주 도암 스님, 통도사 율원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안미옥 정법사 신도회장 외 신도회, 영축다도회, 분다리카합창단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영축총림 구하 스님의 발원으로 창건된 정법사는 경봉 스님이 초대 포교사장을 지낼 만큼 한국불교 현대사에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도량"이라며 "주지 광우 스님을 중심으로 활동 해달라. 정성 모아 올려주신 승보공양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서원했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은 승보공양과 기도정진의 장엄함에 도량의 법향이 충만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불자들의 정진모습과 스님들의 수행전법이 수승한 법연이 되길 발원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우란분절 뜻을 실천하고 가르침을 따르고자 정법사 불자님 한분한분의 정성의 원력으로 스님들께 승보공양을 올리는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스님과 사부대중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창원 정법사 창건110주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진하면서 영축총림 마산포교당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법향가득한 사찰이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도량이 될 것을 서원했다.

분당 대광사, 우리 아이 성장 템플스테이 진행

청솔어린이집과 함께 7월 22일~23일까지 개최

분당 대광사가 청솔어린이집과 함께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대광사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나를 찾고, 너를 알며, 우리를 배운다'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대해 대광사측은 "우리 아이 성장 템플스테이 '나, 너,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고 , 나를 비롯한 모든 것에 소중함을 일깨워 '우리'라는 공동체 집단에서의 배려와 하심(下心)을 발현하도록 한다"며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행동하는 어린이로 성장하는 계기이며,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마음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사찰 습의 교육을 통한 기본예절 지도 및 공동생활과 협동심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사회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유소년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31)715-3000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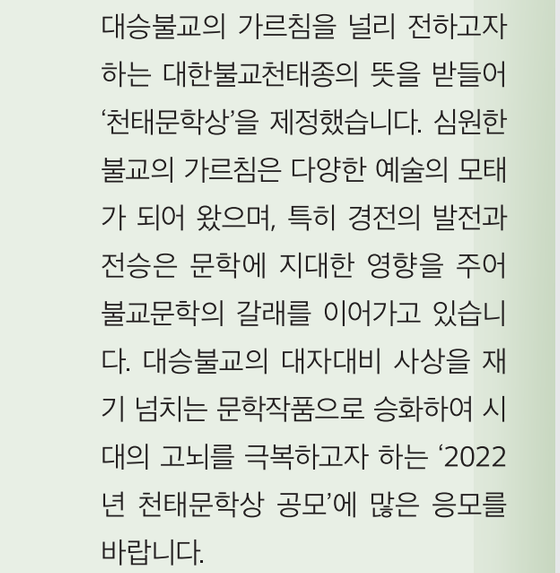


분당 대광사는 지역포교일환으로 청솔어린이집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금강신문사는 한국 문학의 발전과 불교문학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대한불교천태종의 뜻을 받들어 '천태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심원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한 예술의 모태가 되어 왔으며, 특히 경전의 발전과 전승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불교문학의 갈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대자대비 사상을 재기 넘치는 문학작품으로 승화하여 시대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2022년 천태문학상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마감
2022년 10월 31일

발표
2022년 11월 21일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금강신문사

천태문학상

제1회

공모 요강

-분야
운문(시·시조·동시 5편 이상)
산문(수필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자격
등단과 무관하며 누구나 가능

-접수
ggbn@ggbn.co.kr
(전자우편만 가능, 연락처 기재 필수)

-마감
2022년 10월 31일

심사 및 수상자 발표

-수상작 발표
2022년 11월 21일
개별 통보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

-수상작은 금강신문에 게재

시상 계획

-대 상
1편, 상금 1천만원 및 상장 상패

-우수상
2편, 각 상금 500만원 및 상장 상패

-장려상
5편,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상패

-시상식
2022년 12월 초순

기타

-응모작은 반드시 신작이어야 하며 수상작이 표절작이거나 기존 발표작 등으로 밝혀지면 시상을 취소함과 동시에 상금 및 상장 상패 일체를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02-723-1548
2022년 천태문학상 운영 사무국

백양사 운문선원장 정견스님 다비식 엄수

백양사의 선풍을 이어온 운문선원 선원장 정견스님의 다비식이 엄수됐다. 백양사(주지 무공)는 8월 4일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입적한 정견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백양사 대웅전과 전통 다비장인 연화대에서 잇따라 봉행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주지 무공 스님 등 백양사 문도스님과 신도들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명종, 삼귀의례, 영결법요(도성, 현소 스님), 행장소개(만당 스님), 영결사(원광 스님), 조가(불갑사합창단), 조가, 헌화, 인사말(무공 스님)등이 진행됐다.

무공 스님은 "스님은 출가는 저보다 늦은 후배였지만 수행과 전법은 선배와 같은 분이었다. 앞으로 문도들이 정견스님의 수행가풍을 잘 본받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정견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선두로 명정, 오방번, 위패를 앞으로 하고, 이어 문도들과 장의위원, 스님, 만장, 신도들의 긴 장의행렬로 백양사 전통다비장 연화대로 운구됐다. 이어 다비장에 마련된 장작 위로 법구가 안치되고, '3시간의 다비를 통해 이생과의 인연을 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 개최

특별한 산사의 영화음악잔치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6일 경내 화엄원 앞마당에서 '제2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천년고찰과 영화, 음악, 그리고 여름을 함께 즐기는 독특한 음악회로, 큰 인기와 화제를 한 번에 모은 행사로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500명의 참가자와 100여개의 모기장이 화엄원 큰 앞마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일 포스티노' '시네마천국' '첨밀밀' '흑인 오르페' '여인의 향기' 등 유명 영화 OST들이 산사에 울려퍼졌다. 특히 박윤우(기타리스트), 데이브 유(아코디언), 송미호(콘트라베이스), 고수정(해금), 러스트(보컬) 등이 참여



해 직접 영화의 감동을 연주하고 조희창 음악평론가의 해설이 곁들여졌다.

덕문 스님은 "천년고찰 화엄사가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사찰로 거듭나고자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빛고을포교원 삼성각 탱화 점안

화엄사 광주 도심 포교당인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이 7월 29일 대웅전에서 삼성각에 모실 탱화 점안식을 가졌다. 이날 점안한 산신탱화는 칠성, 산신, 독성탱화와 조왕대신 탱화이다. 빛고을포교원은 도심 속 포교공간으로 전통적 삼성각 건물을 대신해 2층 신도들의 중요 통로에 삼성각을 조성하고 이날 탱화를 새롭게 모셨다. 특히 지난해 11월 창건한 도심포교당의 공간적 효율을 높이고 신도들의 다양한 신앙 공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한 새로운 시도다. 회주 현고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된 점안식에는 신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시불공, 점안식, 합창단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연성 스님은 "전통방식으로 조성된 삼성각



탱화는, 돌가루로 채색해 오랜기간 변색되지 않고 신도들의 신앙대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은 개원이래 어린이법회, 일요가족법회, 빛고을불교대학, 문화강좌 등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답은 절에 있다”…日 퀴즈 릴레이 사찰순례

네트워크에 15개 문항 질문 게시
본문불립종 소속 15개 사찰 방문
각 사찰서 해답카드를 받아 진행
QR 법문과 온라인 무료 상담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카나가와(神奈川)현에 소재한 본문불립종(本門佛立宗)소속 15개 사찰이 여름방학 시작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불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며 사찰을 순례할 수 있는 불교 퀴즈 릴레이를 개최해 화제다. 8월 4일, 일본의 ‘엣 프레스’는 새로운 형태의 사찰순례에 대해 보도했다.

본문불립종은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니치렌(日蓮)계열의 종단으로 약 160여 년 전에 세워진 종단이다. 일본 불교사에서는 신흥종단 축에 드는 종단이며 다양한 포교방법, 특히 해외 포교 활동으로도 입지가 탄탄하다.

이중 일본 카나가와 교구의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카나가와 불립사원 네트워크’는 현대인들이 불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찰을 순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불교 퀴즈 릴레이 프로그램 ‘답은 절에 있다!’를 8월 6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불립사원 네트워크 측은 “사찰과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해선 안 된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인 ‘불교 TO THE PEOPLE’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해 개시했다”고 전했다.



불교 퀴즈 릴레이 ‘답은 절에 있다!’의 안내 화면.
사진출처=카나가와 불립사원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역사와 자연이 함께 하는 사찰들을 견학하며 불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퀴즈 릴레이는 불립사원 네트워크에 게시된 15개의 질문에 대해 카나가와 현 전체에 위치한 15개소 본문불립종 사찰을 방문하고, 각 사찰에서 대답과 해설이 쓰인 카드를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답카드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어 이를 통해 릴레이에 참가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법문도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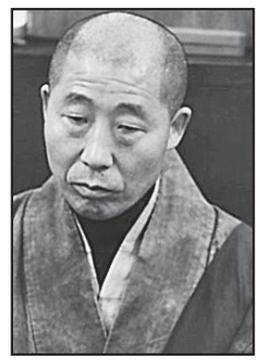
질문은 “사람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절과 신사는 어떻게 다른가”와 같이 일반적인 질문부터 “불교를 수행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교를 믿으면 어떤 것이 좋은가?”와 같이 신행활동과 직결되는 질문까지 다양하게 배분되어 있다.

불립사원 네트워크 측은 “이번에 정해진 질문들은 모두 스님들이 신도들에게서나 사회활동 중에 자주 받는 질문에서 추려냈다”면서 “간단하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데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전했다. 15개소 사찰서 모든 대답지를 받고 법문들은 참가자들에게는 상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불립사원 네트워크 측은 퀴즈 릴레이 뿐만 아니라 해당 15개소 사찰서 스님과의 무료상담 프로인 ‘승담(僧談)’도 진행 중이다. 승담은 릴레이 참가자뿐만 아니라 스님과 이야기 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절에 방문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을 위해 전화나 온라인 등으로도 상담을 받고 있다.

북미자혜불교회 회주 삼우 스님 원적

8월 7일 토론토 선련사서 입적
북미서 한국 불교 알린 선지식
오는 9월 24일 추도 법회 봉행



미국에서 한국불교를 알려왔던 북미자혜불교회(BSCW:Buddhist Society for Compassionate Wisdom) 회주 삼우 스님<사진>이 8월 7일 오후 11시 40분(한국 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 선련사에서 입적했다. 법납 64세, 세납 82세.

삼우 스님은 1941년 3월 3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7세에 상주 남장사로 입산 출가했다. 1958년 부산 범어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받고 설봉 스님에게서 참선 수행을 했다.

1966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1967년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선련사를 개원하고 전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운송업체에서 일 하고 탁발도 했으나 비자문제로 캐나다 토론토로 건너갔다. 그곳에서도 경제적 문제로 우체국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오랜 지하생활로 병을 얻기도 했다. 1972년 토론토 지하실로 참선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선원을 열고 전법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 앤아버(1982년), 시카고(1992년), 뉴욕시 맨하탄(2011년), 멕시코시티(1984년)에 선불교 선원을 창건했다. 선련사를 찾는 신도들은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현지인들이었고, 개중에는 목사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삼우 스님은 본격적인 전법을 위해 1990년 ‘북미자혜불교회’를 창립했고, 초심자를 위한 불교 영문계간지 〈스프링 윈드(Spring Wind)〉를 발간했다. 현재 자혜불교회는 북미에서 다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보편적 구제라는 원력을 실천하고자 1985년부터 3년 과정의 미륵상가대학(Maitreya Buddhist Seminary)을 개설해 한국불교 해외포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삼우 스님의 추도법회는 9월 24일 토론토 선련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印 고등법원, 힌두신상 오해받은 불상 원상복귀 명령

10년 논쟁 끝에 최종 결론
국가 고고학 조사 큰 역할

오랫동안 힌두교 신상으로 오해받아 모셔졌던 고대 불상에 대해 인도의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현지 불교도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반발하는 현지 여론도 거세다. 8월 4일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들은 이례적인 해당 판결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남인도 최대 주인 타밀나두주의 최고 판결기관인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지난 4일, 살렘(Salem)지구의 힌두교 사원인 탈라벳티 무니압판(Thalavetti Muniyappan) 사원에서 주신으로 봉안된 불상에 대해 “더 이상의 힌두식 예배와 종교행위를 금지하며 불상 본연의 모습으로 원상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2011년 살렘지구 한 불교재단이 타밀나두주 주정부를 상대로 힌두교 사원에서 힌두교의 신으로 모셔진 불상에 대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달라 제소한 것에서 시작된 재판이 10년이 넘어서야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힌두교 신상으로 오해받아 왔던 무니압판 불상. 사진출처=타임즈 오브 인디아

원고인 불교재단 측은 “해당사원은 불교사원 유적이며, 파괴되지 않은 불상들이 어느 순간 힌두교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사원을 관리하는 타밀나두 주정부의 힌두종교와 자선단체 관리부는 “이 사원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힌두사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 조각상들이 불교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드라스 고등법원 측은 팽팽히 맞서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17년, 국가 고고학부서에 조사를 지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지했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조사 보고서에서 조사위원들은 “해당 조각상은 하나의 자연석으로 만들어 졌으며 남성을 묘사하고 있다. 연꽃좌대 위에 결과부좌로 앉아 있으며 손은 선정인을 하고 있다. 나발을 묘사하는 곱슬머리와 정수리에 솟은 육계, 길쭉한 귓불은 모두 이 조각상이 명백히 불상임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 또 수석 조사관은 “입수 가능한 현지의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를 모두 검토하였으며, 조각상 역시 불상을 조성하는 32상과 80종호의 특징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미간의 백호는 표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판결을 내린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아난드 벤카테쉬 판사는 “고고학적 조사와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한 결과 문제의 조각품을 불상이라고 판단한다. 불상을 계속해서 힌두신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불교교리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사원의 불상에 부착된 힌두교 상징물이나 안료 등은 제거될 예정이며, 더 이상 불상앞에서의 힌두교 의식과 예배는 금지되지만, 일반 대중이 방문하고 관람하는 등의 학술적인 행위는 허용된다. 또 법원은 불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사원에 게시할 것도 지시했다. 이후 사원과 불상은 주정부 고고학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현지 불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불자는 SNS에서 “고등법원의 사려 깊은 판단을 환영한다. 이 판결을 선례로 남인도에 산재한 불교 유물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타밀나두주 내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거나 힌두신상으로 모셔지는 불교유적과 유물들이 다수 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춘지 1천년이 넘었다. 그동안 힌두신상으로 모셔진 역사성을 무시해선 안되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티베트 지도자 생일 앞두고 규제 강화

“전국대표대회 앞두고 규제 더 강화돼”



티베트 불교 지도자 캬브제 키르티 린포체(Kyabje Kirti Rinpoche · 사진)의 80번째 생일에 중국이 티베트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의 사진이나 축원을 온라인상에 게재하지 말라며 단속에 나선 것이다.

RFA 등 외신의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캬브제 키르티 린포체의 생일인 지난 8일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이나 축원을 온라인상에 올리지 말라”며 “명령을 어길 시 체포하겠다”고 엄포했다.

캬브제 키르티 린포체는 쓰촨성 아바현의 티베트 사찰인 키르티 사원의 지도자였으나 현재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중이다. 1962년 달라이 라마로부터 더 높은 불교 품계를 받은 후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티베트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에게 축하 행위를 경고했다”며 “거역할 경우 체포해 엄벌에 처한다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2021년에도 캬브제 키르티 린포체의 생일을 맞아 쓰촨성 티베트 자치주 내 수도원들의 승려들이 축전을 올리자 이를 금지시킨 바 있다. 그 기간 동안 당국은 승려들의 외출도 집회도 허용하지 않았다.

망명 중인 한 티베트인은 해당 매체에 “작년에 이미 중국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며 “우리는 개인 채팅방에서까지 생일 축하를 조심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인해 규제가 더 심해진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는 린포체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의 장수를 기원하는 공양을 바치길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무용으로 경험하는 '반가사유'

국립중앙博 '사유의 방' 연계 공연
2번째 '사유하는 극장 – 사유의 길'
9월 3일과 4일 극장 용에서 공연

채움, 멈춤, 비움 세 이야기로 구성
배우 안석환, 장윤나(무용) 등 출연



국립중앙박물관이 2021년 11월 11일 상설전시관 2층에 전시실에 개관한 '사유의 방',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안석환(배우)



장윤나(무용)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9월 3일(오후 2시, 5시)과 4일(오후 3시) 극장 용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전시연계 공연 두 번째 시리즈로 관객 몰입형 무용 퍼포먼스 '사유하는 극장 - 사유의 길'을 개최한다.

어둡고 고요한 공간, 어디선가 깊고 깊은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숨소리는 점점 가쁘게 빨라지고 급기야 일정한 리듬의 호흡 소리마저 흐트러진 숨소리에 갑자기 어두운 공간에 희미한 길이 서서히 열린다. 한 길 모퉁이에 쭈그려 웅크리고 앉아 숨만 가쁘게 쉬고 있는 한 여자.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또 한 사람. 천천히 조용히 그녀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속삭인다. "천천히 눈을 떠봐, 뭐가 보이지?" 눈을 감고 지그시 미소 짓고 있는 미륵의 생각 속 수수께끼 같은 신비한 길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인간에게는 금지된 사유의 세계로 들어온 주인공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세 명의 안내자를 만나게 된다. 과연 그녀는 반가사유상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사유하는 극장 - 사유의 길'은 눈을 감은 채 잔잔한 미소를 띠고 깊은 사유에 잠겨 있는 반가사유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는 관객 몰입형 무용 퍼포먼스다. 극장의 전형적인 무대를 탈피한 새로운 공간 연출과 채움, 멈춤, 비움의 세 가지 이야기로 자신과 반가사유상의 마음 속 세계를 경험한다.

1막 채움 - 소유의 길은 탐욕과 욕심의 현실 속 자아, 2막 멈춤 - 멈춤의 길에서는 쉼 없는 현실에서 잠시 멈춰 있는 자아, 3막 비움 - 사유의 길에서는 이제 각자의 선택을 해야 하는 자아가 주제다.

배우 안석환이 그림자, 현자, 화자를 연기한다. 안석환은 에쿠우스, 리어왕, 멕베스 411, 고도를 기다리며, 웃음의 대학, 리처드 3세 외 다수 출연했다.

장윤나가 무용으로 '나(자아)'를 표현한다. 장윤나는 현재 국립극단 단원(훈련장)으로 국립무용단 '회호리', '더블빌',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국제현대무용제 MODAFE '짓(ACT)', SIDANCE 댄서 장윤나 '댄스로그' 외 다수 출연했다. 이예림, 노미진, 유지나, 박희주가 무용으로 그 외 환영들을 연기한다.

극작은 창작뮤지컬 '난설헌의 몽유가'의 박용재가 맡았으며, 연출은 서울드럼페스티벌 등을 연출한 한경아가 맡았다. 안무는 서울시무용단장 정혜진, 음악은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등의 음악을 맡았던 김태근, 영상디자인은 '뮤지컬 엑스칼리버'의 송승규, 기술감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참여했던 김성준, 미술감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참여했던 김상택이 맡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11월 11일 상설전시관 2층에 전시실 '사유의 방'을 개관하고,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전시되고 있는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제작된 우리나라의 국보다. 뛰어난 주조기술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고,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근엄한 반가사유상의 모습은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고뇌와 깨달음을 상징한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면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얹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을 만날 수 있다. 시공을 초월한 초현실의 감각을 일깨우며 반짝임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140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 앞에 있는,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만나게 된다. 종교와 이념을 넘어 깊은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듯, 고뇌하는 듯,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듯, 신비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치유와 평안이 다가온다.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함께 전시해 감동을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전시 공간 조성에 건축적 요소를 도입했다. 과거의 반가사유상 전시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꾸민 전시실은 건축가 최욱 원오원 아키텍스 대표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전시실을 관람객이 스스로의 관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시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된 건축 디자인이 길잡이다. 여기에는 여러 디지털 미디어들의 활용도 한몫했다. 미디어 아트워크 영상을 설치한 긴 진입로는 어두운 실내에 서서히 익숙해지기 위한 전이(轉移) 공간이다. 전시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반가사유상을 마주한 후, 타원형 전시대(展示臺)를 따라 전체 모습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객을 이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04년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극장 용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국립박물관 내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보급 및 박물관의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02)2077-2965

원각사 산사음악회 개최

8월 27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 등 출연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

좋은 벗 풍경소리가 8월 27일 오후 7시 용인 원각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2022 찾아가는 음악회, 풍경소리와 함께하는 팝스 콘서트 '원각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매년 찬불가열창대회, 붓다콘서트와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불교문화공연과 창작활동으로 찬불가의 대중화를 선도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가 기획·제작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불교음악을 접하기 힘든 도서 산간지역이나 불교문화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불교문화, 불교음악을 통한 문화포교 일환의 정기공연이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 이번 공연은 3년 만에 관객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공연이다. 공연에는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를 필두로 좋은 벗 풍경소리의 홍보대사인 가수 우순실, 대중적이면서도 풍부한 예술성을 가진 성악가 황상미, 팝페라 퀸스틀러가 출연한다. (031)332-1562 박재완 기자

제14회 보덕사 호수음악제

8월 28일 오후 1시 30분
보덕사 경내 특설무대



권미희



배아연



임찬

충남 당진 보덕사(주지 정안)는 8월 28일 오후 1시 30분 보덕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4회 호수음악제 '2022 당진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개최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보덕사 호수음악제는 충남 당진시민과 인근지역 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당진시의 대표 불교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스리랑카, 베트남의 전통예술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1부 특별공연에서는 당진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난타 '판타지아' 팀을 비롯해 마하위하러 사원의 '담마프렌즈', 원오 홍연화, 판소리 강리연이 공연한다.

본행사인 2부에서는 개회선언과 성금 전달, 내·외빈 인사말 등이 진행되고, 3부 호수음악제로 이어진다. 보덕사의 꽃이자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덕사 관음합창단'과 즐거운 도반인 '서원사 연화합창단'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당진시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활동으로 다문화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두더락', 화려한 음색과 선율로 축제의 흥을 더해줄 전자현악그룹 '라피네', 보덕사·서원사 지휘자(소프라노 김나희, 바리톤 박성준)들의 따뜻한 무대에 이어 초대가수 배아현, 임찬, 국악가수 권미희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041)353-9306 박재완 기자

닝마파 전통의 핵심 논서!
티베트불교의 현교와 밀교의 요점을 총합한 법장!



정해 보등론 강의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미팡 린포체가 닝마파 대원만 기도과 전 과정의 일체 교의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번역 소개되었다.

전지 미팡 린포체 조송/진메이펑춰 린포체 전수
수다지 켄포 역강/지엄 화상 한역/512쪽/값 28,000원

스님의 그림자

상담하는 비구니 스님의
자기 치유 이야기!



한국 승려 최초로 권위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출가수행자라는, 상담전문가라는 권위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감추고 싶었을 자신의 내면까지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의 경험담이자 탐험기이다.

효록 지음/국판/264쪽/값 15,000원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760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역 염원 모아 고려왕실 동종 천흥사지로”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④ 천안 천흥사명 동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흥사명 동종(국보 제280호)은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범종 가운데 가장 큰 크기와 가장 앞선 연도를 지닌 종이다. 동시에 통일신라 범종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고려적인 요소를 보여줘 한국 범종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편년 자료이다.”

한국 최고 범종 전문가인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저서 〈한국의 범종〉을 통해 ‘천흥사명 동종’을 평가한 내용이다. 최 청장이 평가한대로 ‘천흥사명 동종’은 미술사적 가치가 남달라 1993년 국보로 지정됐다. 국내 남은 최고(最古) 고려시대 범종인 ‘천흥사명 동종’은 높이 1.68m로, 상원사 동종과 성덕대왕 신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태조 왕건과 인연 깊은 천흥사

‘천흥사명 동종’은 본래 천안 성거산 천흥사에 있었다. 천안 성거산은 고려 태조 왕건과 인연이 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태조 왕건이 천안 지역에 왔다가 동쪽을 보니 하늘에 오색구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신이 있는 것”이라며 제사를 지내고 ‘성거산’이라고 명명했다. 천안이라는 지명 역시 왕건이 “이곳에 성을 쌓으면 천하(天)가 편안(安)해진다”는 술사의 예방의 말에 이름을 붙였다.

왕건과 인연이 깊은 천안 성거산에는 천흥사지가 자리하며, 인근에는 천흥사가 복원돼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원(原)천흥사가 언제 지어지고 폐사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천흥사명 동종’에 ‘성거산천흥사종명통화이십팔년경술이월일(聖居山天興寺鐘銘統和二十八年庚戌二月日)’이라고 기록돼 있어 1010년(현종 1년)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천흥사 역시 이 시기를 전후로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천안시가 천흥사지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금당지(추정)와 함께 2호 건물지, 회랑지, 답도시설 등을 추가로 확인하며 고려시대 천흥사의 가람배치를 추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당지(추정)는 오층석탑의 서쪽 후면에 자리하고 있다. 규모는 남북 20m, 동서 18m 정도의 대형이고 정면 5칸, 측면 4칸의 구조를 보인다. 건물의 기단은 주로 중심 건물에 사용되는 ‘가구식’의 형태이며 장대석을 이용한 출입(계단)시설도 함께 조사됐다. 또한 ‘천흥(天興)’ 명문기와와 당초문 암막새, 치미 편, 고려청자 등이 수습돼 천흥사의 창건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천안시는 학술자문회의에서 “천흥사가 고려 초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충남지역 고려시대 절터 중 가장 우수하고 장엄한 최대급 규모의 절터였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단 및 계단의 조성 기법은 그동안 충남지역 고려시대 유적에서 남아 있는 기단 중 가장 우수하고 장엄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천흥사의 성격 및 가치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흥사명 동종의 고난 유랑일지

고려 초 조성돼 융성한 사세(寺勢)를 자랑했던 천흥사는 언제 폐사했을까. 정확한 폐사 기록은 없지만, 대략 조선 시기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의 태종 7년(1407) 12월 2월 기사를 보면 “지난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를 들고, “만일 산수(山水) 좋은 곳의 대가람(大伽藍)을 택망해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하기 위해 각 고을에 자복사를 두었으니, 직산(稷山)에는 천흥사를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1407년까지는 사찰이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양식 계승한 고려 범종
천흥사 폐사 뒤 남한산성에 걸려
근대기 반출 박물관 소장품 전락

불교계, 충남도 중심 환수위 구성
코로나19 유행에 활동 ‘잠시 멈춤’
천흥사지 발굴조사 등 정비 추진
“지역 환수 여론 조성에 힘쓸 것”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직산현 고적 조에는 “천흥사가 성거산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돼 있어 1481년 이전에 폐사됐음을 알 수 있다.

폐사 이후 전각은 없어지고, 성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쉬이 옮길 수 없던 당간지주와 5층석탑만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불상과 불화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천흥사명 동종’은 남한산성이 축성된 1624년(인조 2년) 이후 남한산성의 종각으로 옮겨져 시각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됐다.

남한산성에서 시각을 알리던 ‘천흥사명 동종’은 근대 시기에 박물관 소장품으로 전락한다. 1912년 이왕가박물관에서 발행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을 보면, 도판 제63호로 종의 명문과 함께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설에는 “대종은 일찍이 경기도 광주읍내 있었는데 1910년 5년 창경궁으로 옮겼다”고 기록됐다.

1938년 이왕가박물관이 덕수궁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종도 함께 자리를 옮겼다. 당시 신관 2층 중앙홀에 진열했는데 중앙에는 철조석가여래좌상이, 우측에는 석조여래좌상이, 좌측에 천흥사명 동종이 전시됐다. 해방 이후 덕수궁 이왕가박물관은 1969년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됐다.



국보 제280호 천흥사명 동종. 1010년 조성됐으나 천안 천흥사가 폐사된 뒤에는 남한산성에 걸려 시각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1910년 이왕가박물관이 매입해 박물관 소장품이 됐다.



천흥사명 동종 환수추진위원회의 현장 답사 활동 모습. 2020년 결성됐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활동을 멈춘 상황이다.

천흥사명 동종, 이젠 다시 제자리로

‘흥천사명 동종’은 숭유억불의 폐해가 낳은 결과다. 과도한 억불 정책은 고려왕실 사찰의 폐사를 불러왔고, 유랑길에 오른 동종을 조선왕실이 다시 사들여 박물관 소장품으로 만들었다.

현재 ‘천흥사명 동종’은 충남도 · 천안시 · 수덕사 · 천흥사를 중심으로 환지본처가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 도의원과 지역 불교계, 천안시청, 천안시문화원, 천안박물관이 중심이 돼 2020년 ‘천흥사명 동종 환수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현장답사와 관련 모임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멈춤’ 상태로 있다.

그나마 천안시가 ‘고려시대 문화유산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통해 천흥사지의 사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천안시는 2023년까지 천흥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24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흥사지 발굴조사와 주변 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서산 보원사지 사례처럼 환지본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지본처를 추진하는 지역 사찰과 지자체는 환지본처를 염원하는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동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천흥사 주지 성전 스님은 “천흥사명 동종은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범종이다. 이 범종이 역사의 부침 속에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면서 “성보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가치를 가진다. 이제는 천안 성거산 천흥사지로 동종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 활동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 전시를 요청했는데 거절됐다”면서 “동종의 환지본처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모여야 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학술대회나 현장탐방 등을 통해 천흥사명 동종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수덕사)은 “국유성보문화재의 환지본처를 위해서는 지역과 사찰이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와 천흥사가 환지본처에 대한 강한 원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고려왕실 사찰 천흥사지의 위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천흥사명 동종’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를 중심으로 여러 성보문화재의 환수를 추진 중”이라며 “천안 지역 불교계와 지자체가 환수에 적극 나선다면 수덕사와 지역 말사들도 적극 연대하며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공휘 충남도국외반출문화재조사단장은 “최근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천흥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찰이었을 것이다. 이를 복원하는 데에 천흥사명 동종의 환지본처는 필수적”이라며 “추진위 활동을 다시 활성화해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인증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부동산 융합풍수학과
■ 개 강 : 2022년 9월 19일(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교육비 : 월 7만원
여해스님 (부산이산학회 회장,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2년 8월 부터
■ 개 강 : 2022년 9월 5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7

▶ 78회 예고
아쇼까왕 정벌군은 공격대오로 짬빠성을 떠난다. 깔링가국 영토로 들어가는 초입이므로 서행했다. 전투코끼리가 운반한 뗏목 통나무들은 마하다니강을 건너가는데 임시다리로 이용했다. 강을 건넌 아쇼까왕 대군은 다야강으로 진격한다.



아쇼까 대군, 짬빠성에 집결하다

아쇼까왕은 전군에게 출동 준비태세에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보병들은 강가강 야영장에서 전선에 올라탔다.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는 빠딸리뿌뜨라성 외곽에서 즉시 짬빠성 쪽으로 이동했다. 사문들은 뗏목에 옮긴 이동법당을 지켰다. 아쇼까왕은 대장선에 오르기 전에 마하데바라 수상과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와 잠시 환담을 나누었다.

"수상이여, 전투는 속전으로 끝낼 것이오. 다만 깔링가 군사가 배수진을 치고 저항한다면 군수물자가 더 필요할 것이오. 군사가 이동한 뒤에 바로 군수물자를 전선 편으로 보내시오."

"예, 대왕님이시여."

강가강은 빠딸리뿌뜨라성을 거쳐서 옛 앙가국의 수도 짬빠성 북쪽으로 흘렀다. 앙가국은 일찍이 마가다국에 복속된 나라였다. 짬빠성은 강가강이 빠딸리뿌뜨라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휘어지는 평야에 있었다. 깔링가국 영토는 짬빠성에서 30요자나쯤 남쪽으로 가면 나왔다.

전령 참모는 대장들에게 아쇼까왕의 1차 비밀명령을 전달했다. 짬빠성에서 모든 군사들을 집결하라는 것이 아쇼까왕의 1차 비밀명령이었다. 짬빠성까지는 신속하게 이동하고, 거기서부터는 실제 전투대형을 갖춘 뒤 서서히 남행한다는 것이 아쇼까왕의 작전이었다.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도 당부했다.

"마힌다 비구와 상가밋따 비구니가 훌륭한 사문이 되도록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단연 출중합니다. 니그로다 사문을 어느 순간 앞설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아쇼까라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문이 될 것입니다."

"장로님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장로님께서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엮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나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법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과 딸은 장로님 곁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님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문은 전생에 선근이 있고 부모가 쌓으신 공덕이 크기 때문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부모의 공덕을 칭송하자, 아쇼까왕은 웃자인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데비가 떠올라 더 말하지 못했다. 보병들의 사기를 올리고자 궁중악대가 연주를 했다. 나팔을 불고 둥둥둥 북을 쳤다. 이윽고 아쇼까왕이 장엄한 대왕선에 승선했다. 대왕선은 3층 누각 형태로 앞뒤 전선들을 내려다보면서 지휘할 수 있게끔 높았다. 대장선 앞으로는 몇 척의 전선만 있었다. 정찰대장의 정찰선과 선봉대장의 대장선, 호위대장의 대장선이 대왕선을 일정한 거리에서 인도했다. 대왕선 뒤로는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선과 수백 척의 전선들이 일자진 대오를 갖추고 뒤따랐다. 이동법당을 실은 뗏목은 맨 끝에 꼬리처럼 붙어서 움직였다. 전선마다 높이 솟은 돛대 끝에서는 공작새가 그려진 마우리아국의 흰색, 붉은색, 파란색의 국기가 펄럭였다.

한편, 경비대장은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를 지휘했다. 경비대장은 참모들을 불러 지시했다.

"짬빠성 각가라호수에서 집결하라는 것이 대왕님의 명령이오.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시오."

"대장님, 며칠 만에 집결하면 되겠습니까?"

"황소가 보름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하니까 달리는 코끼리나 말이라면 10일이면 충분할 것이오."

"하루에 몇 요자나씩 이동하면 되겠습니까?"

"2요자나씩 이동하면 10일 후 짬빠성에서 집결할 수 있을 것이오."

빠딸리뿌뜨라에서 짬빠성까지는 17요자나 거리였다. 그러니 경비대장 셈법으로 하루에 2요자나씩 이동할 경우 10일이면 가능했다. 일부러 기마부대 뒤에 코끼리부대를 세웠다. 말이 달리는 것을 보면 코끼리가 흥분해 빨리 움직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이 짬빠성을 1차 집결지로 결정한 것은 전선에 탄 보병은 짬빠성에서 남쪽으로 휘어지는 강가강을 좀 더 이용할 수 있고, 전투코끼리와 전투말의 물과 먹이를 해결할 수 있어서였다. 짬빠성에 있는 각가라호수 주변에는 짬빠까나무 숲과 부드러운 잡풀이 무성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의 대군은 일제히 깔링가국을 향해 진군했다. 보병들이 탄 수백 척의 전선들은 강가강을 까맣게 덮은 채 동쪽으로 움직였다.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동속도는 아쇼까왕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랐다.

휴식을 충분하게 취한 전투코끼리와 군마들도 힘차게 땅을 차고 나갔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군사들이 전투코끼리와 군마들의 넘치는 힘을 가까스로 조절했다. 육로로 이동하는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도 강가강을 타고 가는 보병 못지않게 속도를 냈다. 아쇼까왕의 작전은 정확하고 치밀했다. 아쇼까왕이 호위대장을 불러 말했다.

"정찰대장은 어디까지 나가 있소?"

"짬빠성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짬빠성에 가서 미리 집결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육로로 가는 부대들은 어떻소?"

"보병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병과 거의 같은 시각에 짬빠성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뗏목에 실린 이동법당에 사문들은 잘 있소?"

"장로 사문이 법상에 앉아서 대왕님 군사의 무운장구를 날마다 빌고 있습니다."

"이동법당을 잘 보호해야 하오."

"대왕님 지시대로 이동법당 주위에도 뗏목을 띄워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뗏목 수십 척이 이동법당을 보호하며 움직였다. 뗏목은 어부 출신 군사들이 긴 삿대를 들고 맡았다. 그러나 뗏목 역시 흐르는 강물을 타고 있어서 군사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았다. 강가강은 동쪽으로 갈수록 강폭은 넓어지고 수심은 깊어졌다.

"뗏목이 없으면 정벌이 불가능하오. 그러니 무기 못지않게 잘 간수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깔링가국은 강이 많은 나라이니까 그렇소. 선왕들이 정벌하지 못한 이유도 깔링가국의 강 때문이었소. 강들이 방어를 해주니 쉽게 공략할 수 없었던 것이오. 그러나 나는 다를 것이오. 아무리 깊은 강이라도 뗏목으로 다리를 만들면 공격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오."

"대왕님은 위대한 전술가이십니다. 전략가이십니다."

호위대장은 아쇼까왕의 지시를 받으면서 두 번이나 놀랐다.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 이동법당을 전투에 이용하는 전략을 보고 놀랐고, 뗏목을 이용해 도강작전을 구사하려는 전술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빠딸리뿌뜨라성을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아쇼까왕은 정찰대장의 보고를 받았다. 정찰대장은 짬빠성 집결지를 정찰한 결과를 보고했다.

"브라흐민들과 장사를 하는 바이샤들의 협조가 대단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협조한다는 것이오?"

"군사들이 짬빠성에 머무는 동안 군량미와 모든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고마운 일이오. 사실 짬빠성 백성들은 마우리아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오. 우리 군사들 중에 짬빠성 출신들이 빠딸리뿌뜨라성 못지않게 많소. 이것이 그들의 충직함을 증명하고 있소."



옛 앙가국 짬빠성 사람들은 마가다국에 일찍 복속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가다국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현재까지 마우리아국의 주류는 옛 마가다국 브라흐민과 끄샤뜨리아들이었다. 또 짬빠성에는 해외무역을 하는 상인인 부호바이샤들이 많았다. 깔링가국 관리들에게 크게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었다. 때문에 깔링가국을 정벌하려는 아쇼까왕에게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아쇼까왕은 정찰대장에게 지시했다.

"보병이 탄 전선들은 짬빠성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가강을 더 타고 갈 것이오. 그러니 어디쯤에서 하선할 것인지 2차 집결지를 알아보시오. 나는 아직 그쪽을 한 번도 순행해 보지 않았소."

아쇼까왕은 즉위한 후, 빠딸리뿌뜨라에서 가까운 성들은 순행했지만 먼 지방은 가보지 않았던 것이다. 먼 지방도시는 자신을 대신해서 대신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세금을 독촉하거나 군사를 차출하는 정도의 공무에 그쳤다. 대부분 전투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술이나 전략은 문외한이었다.

"그쪽 지형은 소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1차 깔링가국 정벌 때 소장도 참전했습니다."

"마하데바라 수상이 추천했던 지휘관이었소?"

"그때 소장은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상님은 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상님이 1차 정벌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대장은 어느 지점이 2차 집결지로 좋다고 생각하오?"

"강가강이 동쪽에서 흘러온 브라마뿌뜨라강과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강가강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겠군. 깔링가국은 남쪽에 있으니까."

"대장, 아직은 비밀에 붙이시오. 1차 집결지에서 대장들에게 2차 집결지를 알리겠소."

"대왕님이시여, 지금부터 소장은 입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쇼까왕은 정보나 첩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할아버지 짠드라굽따 대왕이 알렉산더 군대를 격퇴시킨 일도 정확한 정보 때문이었던 것이다. 짠드라굽따 대왕이 한때 알렉산더의 참모를 하면서 알렉산더 정복군의 전력과 전술을 낱낱이 알게 되었던바 정복군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격퇴시켰던 것이다. 정복군들 일부는 풍토병에 걸려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고, 짠드라굽따왕에게 코끼리부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돌진하는 코끼리부대는 노도와 같아서 알렉산더 정복군의 주력인 장창부대를 거침없이 쓸어버렸던 것이다. 코끼리부대가 돌격하면 장창부대는 폭풍에 날리는 나무이파리처럼 맥없이 흩어져버렸다. 수시마 이복형이 탁실라 부왕으로 가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대신회의의 정보가 반란군에게 흘러갔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그 점을 경계하면서 탁실라 반란군을 속전속결 작전으로 단번에 진압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의 군사는 짬빠성 안팎에 무사히 집결했다. 코끼리부대의 코끼리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코끼리가 이동 중에 새끼를 낳은 것이었다. 기마부대의 말도 마찬가지였다. 호위대장이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코끼리는 10마리가 늘었습니다. 또한 말은 5마리가 늘어났습니다."

"상서로운 일이오. 새끼들은 짬빠성에 선물하시오. 이곳 브라흐민과 바이샤들이 오늘 군량미와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소."

"새끼들은 전장 터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기서 이틀을 머문 뒤 이동하겠소. 군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 배불리 먹게 하시오."

"예, 대왕님."

과연 정찰대장의 보고대로 짬빠성 브라흐민 수십 명과 부호바이샤들이 아쇼까왕의 임시군막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브라흐민 우두머리가 아쇼까왕의 목에 하얀 짬빠까꽃 목걸이를 걸어주고는 엎드려 절을 했다. 짬빠까꽃 향기가 임시군막에 진동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브라흐민들과 바이샤들도 엎드리면서 땅에 입을 맞추었다. 아쇼까왕을 존경한다는 표시였다.〈계속〉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⑮ 보문 선사의 구도 수행 3



▶한줄요약
보문 스님은 우여곡절 끝에 오대산 상원사 한암 스님 문하에서 출가해 난암 스님과 함께 한암 스님의 선풍을 드날린다.

우여곡절 끝 출가해 한암 선풍 떨쳐

7. 마하연을 떠나다

보문은 금강산 마하연에 도착한 뒤로 산 아래 본사인 장안사로부터 쌀을 얻어 지고 오는 일을 도맡았다. 오르막길이었기에 중간에 몇 번 쉬어야 했고 그때마다 담배를 피웠다. 석우(石友, 1875~1958)의 상좌로서 마하연의 원주 노릇을 하고 있던 우봉(愚鳳, 1898~1953)이 그걸 보아두었다가 꾸짖었다. 보문은 그 꾸지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바로 담배를 끊었다.

다시 발심한 보문은 정식 출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마하연 선방의 조실인 석우를 은사로 하고 싶었다. 보문이 석우 슬하로 출가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은 우봉은 석우에게 보문의 흡연 사실을 알리면서 보문을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문은 우봉의 꾸중을 듣고 난 뒤로는 담배를 끊었다. 그리고 석우도 보문을 안 좋게 보지는 않았다. 보문이 월정사에서 사미계를 받을 때 계사가 되어 주었고 세월이 흐른 뒤 보문이 입적하자 보문을 그리워하면서 "보문 스님 같은 스님은 그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분은 우리 종단의 사표"라고 격찬을 했던 것이다. 그런 석우가 보문을 상좌로 받아주지 않았으니, 우봉이 얼마나 강하게 보문을 밀어냈을지 짐작하게 된다.

우봉이 보문을 경계하고 질투했다고 증언한 분들도 있다. 출가 승려인 우봉이 여덟 살이나 어린 보문을 경계하고 질투했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필자는 큰스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승가 스님들 사이의 은밀한 관계의 이야기를 적잖이 들어왔다. 물론 서로 칭찬해주고 장점을 내세워주는 관계도 있었지만, 경쟁이나 질투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았다. 그 시기에 우봉도 그와 유사한 마음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봉이 모든 사람에 대해 다 그러하지 않았으니 보문의 어떤 부분이 우봉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보문은 사진 찍기를 기피하여 단 한 장의 초상사진만 남겼다. 팔공산 삼성삼 토굴에 거처할 무렵 탁발 등의 이유로 대구 시내로 내려오면 주로 시내 서봉사에서 머물렀다. 서봉사 가까이에 있었던 미8군의 미군이 삿갓 쓴 보문의 모습에서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받아 억지로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한다. 그 사진이 보문의 인상을 생생하게 전한다. 보문을 직접 만나 본 분들도 대체로 그 외모에 대하여 비슷한 증언을 해준다.

보문은 키가 크고 마른 몸이었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음식을 받아야 한다'는 오관게(五觀偈)의 가르침을 완전히 실천한 모습이었다.

사람의 눈매는 날카로우면 자비롭지 않고 자비로우면 날카로울 수 없다. 보문의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자비로웠으니 다들 그 눈매가 형형하다고 한다. 사람의 음성은 우렁차면 맑지 않고 맑으면 우렁찰 수 없다. 보문의 음성은 우렁차면서도 맑았으니 다들 그 음성이 청아하다고 한다. 그 형형한 눈매를 한 번 보고 그 청아한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 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매료되어 이끌리게 되었다. 부산과 대구의 시장통으로 탁발을 나가면 상인들은 물론 수많은 거지들까지도 몰려들었다. 보문의 염불 소리에 반한 속리산 호랑이가 춤을 추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고, 그 염불을 듣고 해탈한 사람도 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다. 황산덕 교수의 부인이 그 흉흉한 부산 피난 시절에 보문을 만나 일생의 신도가 된 것도 범일동 시장에서 탁발하는 보문의 모습과 염불 소리에서 비롯했다.



마하연에서 출가하지 못한 보문 스님은 고송 스님의 인도를 받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다. 사진은 오대산 상원사의 옛 모습.

그런 외모와 음성을 가진 보문이었기에 입만 벙긋해도, 아니 그냥 잠자코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두드러져 보였다. 거기다 보문은 한학과 신학문을 함께 공부한 인텔리로 한산시(寒山詩) 등 중국 도인의 오도송을 읊고 다녔다. 능엄주를 3일 만에 외우고 〈범망경〉을 일주일 만에 외우는 탁월한 기억력도 가졌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에 따라 이런 보문의 모습이 가져다준 결과는 달랐다. 많은 경우는 보문의 모습에서 위안을 받고 흠모하게 되었다. 혹은 위축되어 제압당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열등감을 느끼고는 질투했다. 금강산 깊은 산골 마하연에서 석우의 맏상좌로서 기반을 닦아가고 있던 우봉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온 보문이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의지박약을 문제 삼았지만, 속마음에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우봉은 보문이 은사의 문하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맏상좌인 자기 자리가 흔들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금강산 마하연서 출가하지 못해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 문하 출가
난암과 함께 한암선풍 널리 떨쳐

보문의 구도 수행의 길에는 이렇게 겉모습이나 상(相)에 집착하거나 끄달리는 중생의 마음 씀씀이가 개입해서 작동했고 마침내 보문을 떠나가게 만들었다. 거듭된 스토리 구조로서의 '자기서사'를 따진다면, 보문은 타자가 자기를 질투하고 배척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버티며 겨루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떠나가기를 거듭했던 것이다. 오대산 상원사에서는 탄허(呑虛, 1913~1983)가 그 타자 노릇을 했다. 1947년 희양산 봉암사에서는 성철(性徹, 1912~1993)과 향곡(香谷, 1912~1978)이 그 노릇을 했다. 우봉도 다시 개입했다. 봉암사 결사에는 우봉이 '사찰운영의 전책임'을 지고 동참했고 보문은 '10년간 장경 수호'를 책임지고 합류했다. 이때 보문은 우봉과의 '사소한 충돌'(성철의 회고록)로 법주사 복천암으로 떠나게 되었다. 마하연에서의 배척과 떠남이 봉암사에서 재현된 것이다.

8. 난암과 보문

마하연에서 출가하지 못한 보문은 고송(古松, 1906~2011)의 인도를 받아 오대산 상원사로 가서 한암(漢巖, 1876~1951)을 뵈었다. 한암은 보문의 여윈 몸을 걱정했다. 약한 몸으로 수행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러자 고송은 "그리 허술한 사람은 아니니 이름이라도 걸어주십시오"라며 거두어주길 재차 부탁했다.

보문이 한암의 문하로 출가하는 과정은 이렇게 명료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 세간과 출세간은 간명하기보다 기구하고 복잡하게 엮어진다는 진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탄허(呑虛)는 1959년 은사 한암의 비문에 이렇게 썼다. "스님(한암)의 법을 얻은 제자가 몇 있는데 오직 보문(普門)과 난암(暖庵)만이 지행(志行)이 초절(超絶)하여 자못 종풍(宗風)을 떨쳤다. 보문은 불행히도 일찍이 별세했다."

탄허는 자신은 한암의 종풍을 받들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보문과 난암(暖庵, 1893~1983)만이 지행이 뛰어나 한암의 선풍을 떨쳤다고 알렸다. 보문과 함께 난암을 거론한 것이다. 난암은 속명이 유종묵(柳宗默)으로 역시 간단치 않은 삶의 여정을 밟아간 분이다.

난암은 26세 때 3.1운동에 참가한 뒤 만주 북간도와 연해주 등지를 유랑했다. 독립운동과 관련되었으리라 짐작한다. 1929년 조선으로 돌아와 불영사에서 출가했다. 그 뒤 한암에게 건당(建幢)을 하였다. 그러다 1935년경 일본 교토 임제학원으로 가서 불교철학을 공부했다. 난암은 재일불교학생회 회장을 맡아서 활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대구사범학교 항일비밀결사 조직 무우원(無憂園)을 주도했던 조형길이 학교를 중퇴하고 일본 도쿄로 건너가 센소사(淺草寺) 불교학원에 진학하여 항일 동지를 규합한 사례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난암은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도쿄의 국평사(國平寺), 오오사카의 통국사(統國寺) 등을 관리하거나 개원하여 재일조선인의 신행 장소로 삼았고, 일제강점기 때 이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분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그 유골을 모시어 민족이 통일되는 날을 기다렸다. 조총련과 연계되었기에 남한보다는 북한과 더 가까웠다고도 한다.

난암이 1920년경 만주로 갔다가 1929년 불영사로 출가하여서 1930년경 상원사로 와서 1935년까지 머물며 수행했다면, 보문은 1932년 대구로 왔다가 1935년 부산항만으로 갔고 1936년 상원사로 와서 수행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난암과 보문의 동선은 겹쳐지지 않는다. 한암의 선풍을 드날린 두 제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한암의 선풍을 이어간 셈이 된다.

그러나 도문(道文, 1935~)은 난암과 보문이 직접 만났거나 연결되어 함께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 증언한다. 잠시 도문의 가족사와 도맥을 살필 필요가 있다. 도문의 선조는 삼대에 걸친 용성(龍城, 1864~1940)의 후원자이고 도반이었다. 용성은 3.1운동에 동참했다가 옥고를 치른 뒤 포교당인 대각사를 열어 대중을 이끈 실천적 선승이었다. 도문의 부친 임철호는 용성의 재가 상좌이며 독립투사였다. 임철호가 투옥됐을 때 용성은 12차례나 면회를 갔다. 용성은 임철호가 자식을 낳으면 자신의 법을 이은 동헌(東軒, 1896~1983) 문하로 출가시키라며 도문(道文)이라는 법호를 미리 지어주었다. 동헌과 도문은 진보적 승려인 용성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했으니, '용성-동헌-도문' 그리고 법륜으로 이어지는 한국불교의 진보적 도맥이 형성되었다. 이 도맥에 의해 보문과 난암의 관계가 포착되고 증언된 것이다.

동헌이 용성으로부터 듣고 스스로 견문하기도 하여 도문에게 전한 '난암-보문'의 사연은 이러하다. 보문은 대구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이 무렵 대구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의 거점이었고 부산과 김천 지역에서도 동조의 기운이 있었다.

그 뒤 보문이 여러 곳을 거쳐서 결국 오대산 한암 문하로 출가한 것은, 먼저 한암의 상좌가 되어 있던 난암이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용성과 동헌 그리고 도문만이 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난암과 보문은 대구에서 함께, 혹은 떨어져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 그러다가 그 시대의 가장 아픈 곳들을 두루 거쳐서 마침내 오대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한암 선풍을 드날렸다는 것이다.

〈연세대 객원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⑮ 효자 섬자 본생담

▶ 한줄요약
부처님 전생이야기 중 '사마 자타카'는 눈먼 장님의 자식인 '섬'이 효행으로 회생하고 부모의 눈도 뜨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설화인 '심청전'과도 유사하다.



孝로 불도를 이룰 수 있다

흔히들 불교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중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배경에 관해서 북방 기마유목민족이 중원지방을 통치할 수단으로 한족 문화가 아닌 당시 최고의 종교인 불교를 이용했고, 여기에 중국 전통의 효사상을 개입시켜 정치권과 민간에서 더욱 유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에 전래되기 전의 불교에는 효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을까? 정말 초기 불교는 효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않았을까? 오로지 불교에 들어간 효사상은 중국인들의 유교 덕분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경전에 속하는 팔리어로 기록된 남전 장경에서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았다. 팔리어로 기록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547개 중에서 540번째 '사마 자타카' (Sama Jataka)는 내용만 본다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효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다.

눈먼 부모에게 지극한 효를 행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마 자타카'는 일찍부터 형상화 되었는데, 가장 먼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경에 조성된 산치대탑(Sanchi Great Stupa)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간다라 지역의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와 스와트(Swat) 그리고 6세기경 조영된 인도의 아잔타 석굴(Ajanta Caves) 제 10굴에도 현존하고 있어 '사마 자타카'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 전해진 '사마 자타카'는 '눈먼 맹인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주인공의 이름이 '사마'에서 '섬자' (睒子)로 바뀌었을 뿐 줄거리에 큰 차이는 없다. 번역자는 알 수 없으나 대략 4세기 초에 한역됐으며, 불도를 닦는 늙은 맹인 부부를 잘 섬겼다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불설 섬자경(不說 睒子經)〉 〈섬자경(睒子經)〉 〈섬경(睒經)〉 〈효자 섬경(孝子 睒經)〉 등으로 부른다. 한역 경전에는 서진(西秦)의 승려 성견(聖堅)이 한역한 〈불설 섬자경〉과 〈육도집경(六度集經)〉 제5권에 '섬자장(睒子章)'이 수록돼 있으며, 두 경전의 내용은 거의 같다.

중국에서 '섬자 본생담'을 도해한 사례는 기원후 4~6세기경 조성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쿠차(庫車, Kucha) 지역의 키질 석굴(克孜爾, Kizil) 7·8·17·69·114·157·175·186·198굴, 북위시대(北魏, 386~534) 맥적산(麥積山) 석굴 127굴, 운강(雲崗) 석굴 9굴, 북주(北周, 557 ~581)와 수대(隋代, 581~619)에 걸쳐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461·299·301·302·417굴 등에서 다수를 찾아볼 수 있다.

성견이 한역한 〈불설 섬자경〉을 돈황 막고굴에 도해된 〈섬자 본생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막고굴 229굴의 그림으로 읽어 보고자 한다.(그림 위) 막고굴 229굴은 6세기 후반에 개착돼 조성된 굴로서, 복두형 천정의 사면에 걸쳐서 〈섬자 본생도〉가 표현돼 있다.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은 돈황 막고굴 제229굴 천정 벽화인 〈섬자 본생도〉. 북주시기 5세기 후반에 조성됐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라륵국(比羅勒國)에서 1천 250명의 비구들에게 오랜 과거에 도솔천(兜率天)의 자혜보살(慈慧菩薩)로 계셨을 때의 인연을 이야기 말씀하셨다. 자혜보살이 중생들을 구제하며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니, 가이국(迦夷國)이라는 나라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부부가 산속에 들어가 불도를 닦고자 하나 앞이 보이지 않아 서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겼다. 자혜보살은 내가 지금의 목숨이 끝나면 그들을 위하여 아들로 태어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모셔야겠다고 맹세하였다. 곧 맹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자혜보살은 일곱 살이 되자 이름을 섬(睒)이라고 지었으며, 지극한 효행과 선행을 행하고 산목숨을 죽이거나 도둑질하지 않았다. 섬의 나이 열 살이 지나자 부모에게 어린 자신을 키우느라 산에 들어가 불도를 정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 본래의 뜻대로 부모님을 따라 함께 산에 들어가서 두 분을 모시고 봉양하겠다고 청하였다. 이후 섬은 집안의 온갖 재산과 보배를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크게 보시하고 부모와 함께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섬은 부모를 모시고 깊은 산중에 이르러서 나무와 풀로써 집을 짓고, 단 열매와 샘물을 양식 삼아 불도를 닦으며 살았다.

장님 부모 지극히 보살폈던 '섬'
효행으로 회생하고 부모 개안도
우리나라 설화 '심청전'과 유사
효로 불도 수행할 수 있음 시사

①어느 날 가이국의 왕이 궁전을 떠나서 ②섬이 살고 있는 산에 사슴 사냥을 나왔는데, ③사슴 가죽옷을 입고 샘에 물을 뜨러 온 섬을 사슴인 줄 알고 활을 쏘아 섬의 가슴에 화살이 박혔다. 화살의 독이 퍼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섬은 자신이 죽은 뒤 돌봐드릴 사람이 없는 부모님을 걱정하며, 왕에게 늙고 눈먼 아비와 어머니를 부탁하였다.

섬이 죽자 왕은 자신의 살생을 후회하며, ④섬의 부모가 사는 초가에 찾아가서 샘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섬의 부모는 애통해하였다. ⑤아들의 주검을 확인한 아버지는 섬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는 섬의 발을 끌어안고 핥으면서 한 손으로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한 손으로는 자신의 가슴을 치고 뺨을 치면서 부르짖었다.섬의 어머니가 하늘을 향해 외치길 "천신, 지신과 목신(木神)과 수신(水神)이시여, 내 아들 섬이 부처님을 받들고, 불법을 믿고, 성현을 존경하고, 어버이에 효도하며, 한없이 넓은 어짊을 품어서 덕이 초목에 미치는 줄 압니다. 부처님을 받들고 지극한 효성이 있음을 하늘이 아실진대, 마땅히 화살이 뽑히고 독이 소멸 되어서 아들이 살아나 그 지극한 효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만약 아들의 행실이 그렇지 않다면 저도 마땅히 죽어서 아들과 함께 재와 흙이 되게 하소서."제석천이 그 어버이의 슬픈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벽화 훼손 부분 추정)하늘의 신약(神藥)을 섬의 입속에 흘려 넣으니, 화살은 뽑히고 독은 몸에서 저절로 나오며 다시 살아나 생전의 섬의 모습과 같아졌다. 부모는 섬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보이지 않던 두 눈이 모두 뚜렷하게 떠졌다. 섬의 부모와 섬은 물론 왕과 신하와 따라온 자들이 슬픔과 기쁨이 뒤섞이어 또 한 번 소리 내어 울었다.가이국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모두 부처님의 선을 받들고, 섬과 같은 지극한 효행을 닦으라고 명하니, 그 뒤로 나라가 풍족하고 백성이 편안하여 드디어 태평한 세계가 되었다.

그때 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으며, 가리국 국왕은 아난이었고, 눈이 먼 섬의 아버지는 정반왕이셨으며,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셨고, 제석천은 미륵이었다.

일반적으로 팔리어로 기록된 남전 장경과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대승 장경은 같은 주제를 기록하고 있어도, 시기적·지역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매우 상이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특히 대승 장경의 경우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들어와 한역이 되는 과정에서 번역자와 편찬자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섬자 본생담'은 '사마 자타카'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매우 의외였다. 심지어 독화살을 맞아 죽은 섬이 제석천이 먹여준 신비로운 약 때문에 다시 살아나자, 반갑고 놀라운 나머지 눈이 먼 부모가 개안을 하였다는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똑같다.

그런데 '섬자 본생담'의 눈먼 부모가 효자 섬이 살았다는 이야기에 눈이 번쩍 떠졌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효녀 심청전'의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공양미 삼천석에 팔려갔으나 용왕의 도움으로 인당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싶다. 아마도 이 '섬자 본생담'을 읽는 독자들도 나와 비슷한 공감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설화의 과반 이상이 본생담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어쩌면 정말 '효녀 심청전'과 '섬자 본생담'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섬자 본생담'은 부처님께서 전생담을 통해 효도로써 불도를 수행할 것을 가르치신 것으로, 이미 초기 불교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낳아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마땅히 행하여야 할 효도는 중국 유교의 효사상과 상관없이 이미 불교의 중요한 수행방법의 하나로 들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천안 호두마을 명상센터 아래
문수동 16개 방을
비구니 스님께 세를 놓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센터에서
수행하시며 지내실 분에게 좋습니다.

■ **전세** : 1,500만원
■ **월세** : 보증금 1,000만원 / 매달 5만원
■ 2층에 명상홀 사용하실 수 있고 선원에 명상지도 하시는 사야도께 공부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명상센터 內 황토집 매매 가능합니다.

문의 : 010-7468-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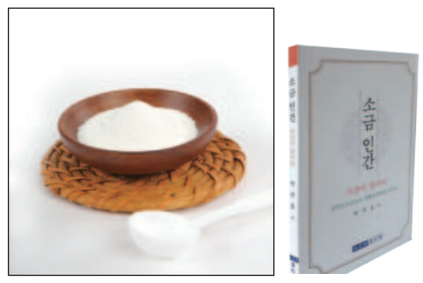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⑧ 녹색사찰 만들기



▶한줄 요약
기후 변화 등 환경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종교적 가르침과 조직력은 환경위기 극복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도들이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현 위기상황의 타개가 가능하다. 녹색사찰운동에 불자들과 스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불편'에 동참해보세요



지난해 12월 한마음선원은 불교환경연대 제30호 녹색사찰로 등록했다. 한마음선원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일회용기를 쓰지 않고, EM용액을 사용하는 등 생활 속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즐거운 불편운동, 녹색사찰만들기

집중실천

1.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1) 일회용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다회용컵을 사용합니다.
3) 손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화장지 사용을 최대한 줄입니다.

2. 비닐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닐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2)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방수망이나 투명망을 씁니다.
3) 떡이나 과일 등을 쌀 때도 최대한 비닐을 대신할 다른 것으로 사용합니다.

3.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1)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2) 가능하면 김치나 무조각으로 닦아 먹습니다.
3) 조리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권고실천)

4. 사찰에서 환경법회와 교육을 실시하기
1) 1년에 2회 이상 환경법회, 2-3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합니다.
2) 1년에 2회 녹색사찰 모두 함께하는 환경캠페인에 참여합니다.
3) 사찰내에서 사찰환경실천 모임을 만듭니다.

5.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1) 덜쓰고 덜버리는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합니다.
2) 나무를 심고 숲은 살리며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3) 기후위기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합니다.

한국사회의 50%가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불교는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등이 있고, 기독교는 CBS기독교방송을 비롯해 CTS, CGNTV, GOOD-TV 등의 방송이 있다. 천주교는 cpbc가톨릭평화방송, 원불교는 WBS원음방송, 증산도의 STB상생방송이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유수의 종교가 각각의 방송국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종교적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종교 간의 긴장감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기독교인이나, 유럽의 천주교, 동남아시아나 일본의 불교인에 비해 우리나라의 각 종교인의 헌신과 열정, 심지어 종교간 배타성이 이렇게 강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국인의 20%는 개신교, 17%가 불교, 11%가 천주교, 기타 종교는 2%로 전체 인구의 50%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종교는 신앙, 믿음, 마음의 조직이다. 산업사회 돈과 탐욕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를 거슬러 욕심을 내려놓고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용서, 협력과 평화를 구하며 선한 가치를 설파하는 집단이 바로 종교 조직이다. 한 사회에 50%가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종교집회에 참여해 선한 마음과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경쟁사회와 종교

한국은 실제 세계적으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일본과 함께 정평이 나있다. 여성이 밤에 다녀도 문제가 별로 없는 국가로 손꼽힌다. 카페나 식당에 핸드폰이나 지갑,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사회이다. 유럽이나 미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택배물건이나 배달음식을 문 앞에 놔둬도 자기 것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역시 외국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선함을 신뢰하는 사회가 지구상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이 된 것은 유교적 윤리의 전통도 있지만, 50% 종교인들의 마음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좋은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종교이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기고 지는 경쟁사회에서 나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를 전제한다. 이러한 경쟁사회에 종교가 동원된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내 자식이 대학에 붙도록, 승진하도록,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이다. 결국 누군가는 대학에 떨어지게 하고 누군가는 승진에서 탈락하고, 누군가는 패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된다.

이러한 탐욕과 경쟁에 부처님과 예수님을 동원해 계층 상승을 돕는 거간꾼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에서 벗어나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청빈하고 가난한 소욕지족의 삶을 살라는 것이 본래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기후 변화 등 환경위기 현실화
환경문제 해결, 이제 필수과제
종교 가르침 실천이 위기 해법
사찰부터 환경운동 실천 나서야
불편해도 '녹색사찰운동' 동참을

종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환경운동에 있어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활동과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생활양식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적 실천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소욕지족의 삶과 나누는 삶이 바로 생태적 생활양식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돈과 물질중심적 사고를 거슬러 살기를 강조하는 집단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종교이다.

모든 종교의 근본가르침과 생활양식은 개인의 이익과 이윤동기를 뛰어 넘어 착하고 좋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며 그러한 사람들을 조직화한다. 모든 종교가 그 본연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실천한다면 오늘날 심각한 위기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천박한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 경건과 절제, 자발적인 가난, 주체적인 청빈, 그리고 영성과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는 인류가 쌓아온 오랜 종교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환경적 실천은 그대로 종교적 실천과 맞닿아있다. 환경운동에서 운동성과 종교성이 전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다 철저한 종교적 수행과 실천이 환경실천과 일치한다. 환경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없으며, 종교 간의 차이나 갈등 없이 그대로 일치하는 공통의 실천과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매개이다.

녹색불교운동, 시대적 과제

이렇게 종교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가 녹색적으로 변화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파장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녹색이라는 말은 환경만으로 한정된 의미가 아니다. 탐욕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를 '청색'으로 표현하고, 이를 비판하여 등장한 사회주의를 '적색'으로 표현할때 '청색'이나 '적색'이 서로 적대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은 모두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며 결국 지구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이다. 따라서 '청색'과 '적색'을 모두 부정한다는 의미로 '녹색'을 뜻하는 것이다. 녹색은 소욕지족의 삶, 돈과 물질에 의존한 위로의 발전하는 무한성장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돌봄과 상호부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옆으로 발전하는 성숙한 사회를 추구한다.

녹색불교는 탐욕을 충족하는 돈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청빈한 삶속에 마음을 밝히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이다. 또한 사람만의 현전승가가 아니라 동물과 식물, 바위와 바람, 숲과 나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사방승가공동체운동이다. 모든 것은 인연되어 연결되고 관계된 존재로 사회적 실천과정이 곧 마음공부하는 과정으로, 수행과 사회변화가 나눠져 있지 않은 불교이다. 이러한 녹색불교의 한 방편으로 녹색사찰운동을 제안한다.

녹색사찰운동 전개하자

환경위기시대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대중적인 실천은 '녹색사찰운동'이다. 전국의 1만 7000여 개의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이기도 하며 불자들의 신행공간이다. 따라서 사찰이 녹색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사찰을 녹색화하기 위해 종단에서 해야 할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개별사찰의 역할만 집중하도록 하자.

우선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과 비닐쓰레기 문제, 각종 폐기물문제, 상류계곡의 수질보존, 사찰림의 보호, 환경교육, 사찰의 냉난방 에너지문제, 교통문제등 실천해야할 다양한 의제가 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부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의 실천에 오래 집중하다 보면 다른 실천으로도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시작한 녹색사찰운동은 3가지의 집중실천과 2가지의 권고실천을 제안한다. '즐거운 불편운동, 녹색사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사찰에서 일회용품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큰 행사를 제외하고 사용을 절제한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한다 등을 집중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한다. △1년에 2번씩 환경법회와 캠페인을 실시하자 △기후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등은 권고실천이다. 실천 세부 내용은 별도의 표와 같다.

환경실천은 번거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거룩한 불편이며 오히려 불편을 즐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실천을 지속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신도들이 사찰에 오기를 꺼려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법회와 교육을 통해서 신도들이 자부심이 높아져 자기 절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는 사례가 더 많았다. 현재 녹색사찰운동의 네트워크에는 40여 개의 사찰과 전국비구니회와 한마음선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녹색사찰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불교환경연대에 협력을 요청하기 바란다. 그러면 법회와 교육지원, 강사 파견을 지원한다. 그리고 녹색사찰을 실천하는 사찰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면서 독려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고 시기에 맞는 각종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과 자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위기시대에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발심해 실천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앞서 언급했지만 종교는 많은 신자들로 조직돼 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라는 종교가 서로 다르지만 환경문제 해결에 관해 동일한 마음으로 긴밀히 함께하고 있다. 이들 종교들이 동시에 실천한다면 큰 사회변화를 이룰 수 있다. 불교가 사회를 움직이는 큰 동력이 되도록 해보자.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8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9월 5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4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2시~5시 :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 매주 화요일 2시~5시 :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수료 후 전과목 USB 증정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120만원 (전과목 교재대 포함)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다산밀축사주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①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②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③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2022년 9월 7일(수)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수 업 료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접수 연락처 054)762-5888 / FAX : 054)762-5889
접수기간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자 격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김지공

‘여래장’ 있어 생사가 있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㉚ 生死와 여래장

〈원문〉 “세존이시여, 태어나고 죽는 생사(生死)는 여래장(如來藏)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래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사의 비롯한 때(本際)를 알 수 없다 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이 있음으로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다’ 고 하는 것은 훌륭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나고 죽는 생사라는 것은 바깥것을 받아들이는 근(根)이 없어지고, 받아들이는 근이 차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이 곧 여래장인데, 세간의 말로 말하므로 죽는다, 태어난다,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근(根)이 망가지는 것이요,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래장이 나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여래장은 유위(有爲)의 모양을 여의었으므로, 항상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래장은 의지할 데이며, 간직하는 것이며, 세우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입니다. 세존이시여, 끊어지고 벗어나고 달라지는 여러 가지 유위법의 의지가 되고 거두어 지니고 세워 일으키는 것이 곧 여래장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여래장이 없으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지금 있는 6식(識) 등의 법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므로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여래장이 있으므로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다고 한 이 말은 영원한 것이 있으므로 무상한 현상이 있다는 일반적인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상계 배후에 본체계가 있다는 말이다. 또 무위법에서 유위법의 차별이 나타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 여래장이 불가사의한 불법(佛法)이라 하고 여래장이 없으면 열반을 구할 수 없다 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래장이 없으면 불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여래장이 바로 불성(佛性)이며 진여(眞如)다. 이를 경전에 따라서 원각(圓覺),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 일진법계(一眞法界), 반야(般若) 등으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여래장’ 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중생이 여래의 씨앗이므로 여래가 될 수 있는 기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곧 중생 누구나 불성의 가치를 똑같이 지니고 있으므로 이 불성만 계발(啓發)하면 열반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치 진금(眞金)이 오물 속에 떨어져 있어도 그대로 진금이며, 아무리 비천한 여자라도 귀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데에 비유하기도 한다. 〈여래장경〉에는 모든 중생이 여래장이란 한 가지 사실을 9가지 비유로 설해 놓은 9유설(九喩說)이 나온다. 비유의 대상인 여래장을 더하여 때로는 10유(十喩)라고도 말한다. 여래장을 꿀에 비유한 이야기도 나온다.

“선남자여, 비유하건대 절벽 위의 나무에 순수한 꿀이 있고 수많은 벌이 그 꿀을 지키고 있을 때 그 꿀을 취하려면 먼저 벌들을 꿀에서 떠나게 한 후에 꿀을 취하여 먹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일체중생이 여래장인 것은 저 순수한 꿀과 같고 모든 번뇌에 덮여 가려진 것은 벌떼가 꿀을 지키는 것과 같느니라.”

〈불성론〉에는 여래장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모든 중생은 여래의 지혜에 섭수된다는 소섭의(所攝義)가 있다. 둘째, 여래의 법신이 중생에게는 숨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은부의(隱覆義)가 있다. 셋째, 중생의 마음에 여래의 과덕(果德)이 거두어져 있다는 능섭의(能攝義)가 있다고 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여래장에 의해 있게 되고 괴로움과 즐거움도 여래장에 의해서 있게 된다는 경문의 말은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이 여래장이라는 것을 밝히는 말이다. 발심을 하는 것도 여래장이고 수행을 하는 것도 여래장이다.

대승불교의 여래장 사상은 여래장 계통의 경전이 성립된 5세기부터 유식 사상과 융화되어 발전한 7세기를 거쳐 밀교화 되는 시기인 7세기 중엽에 이르러 널리 퍼지며 더욱 발전된 교설이 나왔다. 이를 여래장 사상의 발전 3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생의 마음이 여래장의 마음이므로 여래장심(如來藏心)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생의 참마음인 진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괴로움 벗고 싶다면 진여본성으로…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㊸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한 수행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매순간 행복한 삶을 바라며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지만 행복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종교와 신을 찾는 이유 역시 이 행복 때문이겠지만 종교와 신은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행복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 역시도 자신 스스로가 소멸시켜 나가야 합니다. 종교는 단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스스로 찾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괴로움이나 행복한 감정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당면한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먼저 달마대사와 제자 혜가 스님의 문답을 통해서 혜가 스님은 마음 속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켰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벽관수행을 할 당시 도교와 유교에 능통한 신광 스님이 찾아와 스스로 눈밭에서 구법단비(求法斷臂)의 의지를 보이며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달마대사는 신명을 바쳐 구법의 의지를 보인 신광이 예사롭지 않은 법기(法器)임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혜가’ 라는 법명을 내려 제자로 삼았습니다. 달마대사의 유일한 제자가 된 혜가 스님은 수행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수행에 큰 진전이 없자 마음이 불안하여 스승인 달마대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 왔는가?”

“저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저의 불편한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편안하지 못하다는 그 마음을 가져오면 편안하게 해 주겠네.”

“그 마음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대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네.”

이것이 그 유명한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입니다. 달마대사와 제자 혜가 스님과의 문답에서 알 수 있듯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서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온갖 생각 감정 분별이 끊어진 마음 속 그 자리, 그 곳을 보라고 제자 혜가 스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처럼 자기의 마음이 바깥경계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되돌려 마음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여 마음의 본질을 깨칠 수 있다면 누구나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불안한 마음을 내놓으라고 할 때 제자 혜가 스님은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았지만 불안을 일으키는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깨쳤던 것입니다. 그때 달마대사는 “이미 그대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이 안심법문을 통해 제자 혜가에게 마음속의 분별망상과 온갖 감정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마음의 본질인 진여본성으로 되돌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보아 마음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 괴로움을 떠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㉚ 고씽까 법문의 작은 경 1

사대오온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아누룻다여, 그대들이 잘 지내길 바라며, 그대들이 평온하길 바라며, 음식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평온하고 음식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누룻다여,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며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기를 바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며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묻는 것에 물음이 없고 답하는 것에 답이 없다. 한 물음에 두 가지를 섞어 어리둥절하게 되면 핵심을 놓친다. 평범한 것은 그저 다르게 봐야할 것 없이 항상 평범하다. 오온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누구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하지만 뭇 삶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보태든지 빼든지를 반복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회향은 한 스님을 보내어, 마조가 상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시켰다. 그 스님이 회향선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물으니, 마조가 말했다. “그럭저럭 지내온 세월이 어언 30년, 소금과 된장 걱정은 겨우 덜었다.” 그 스님은 돌아가 회향에게 그대로 말하니, 회향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마조 스님은 그럭저럭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다. 마음에 보태고 빼는 일을 버려버린 것이다. 사대오온을 ‘나’ 라고 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 즉심즉불이다. 그대의 사대오온의 조건 그대로 바로 부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대오온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의 것이 아니기에 걱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름 속에 이름 없으나 그 이름으로 대답하니 서로가 방해함 없이 자연스럽게 우유와 물처럼 융화되어 사랑스러운 눈빛을 잃지 않는다. 그대라는 것, 사대오온을 지칭 하는 듯 하나 사대오온일 수 없으니,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해가라고 문을 열어 놓지만 나가는 문을 알지 못하면 잡히게 된다. 오온의 삶은 항상 오온을 걱정하는 삶 밖에 없다. 아무리 걱정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도 뭇 삶의 조건에서는 소용없는 일이 아주 많다. 아니, 전부 그렇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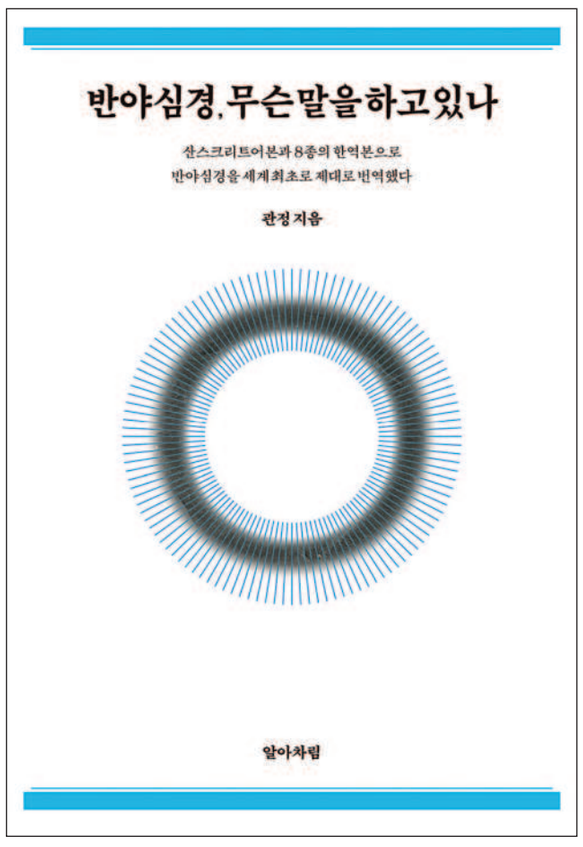
간장, 된장 조달 되어 있으니 평온하여 어려움이 없는 줄 안다. 지금 조건 지어진 것에 ‘나’ 라는 생각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마음이 괴롭게 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평온할 수 밖에 없다. 화합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화합하는 것이 아니다. 마조 스님은 마음을 넓힐 필요도 없지만 좁힐 필요도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오온이 ‘나’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화합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되면 사자는 사자대로,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물소는 물소대로 다투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서로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니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게 하겠는가. 융화하는 것은 육식 동물을 초식동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질의 융화를 알게 하므로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평범해지자. 거창하게 몸의 변화를 알아내고 변화하려고 하지 말자. 지금 삶 밖에 거창하게 만들어진 것들로 무거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사대오온이 내가 아님이 드러나면 거창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가 보인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생각의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신기루이지 사실적인 것은 없다. 이러한 앎은 안팎에 따로 알아야 할 것을 두지 않으니 항상 융화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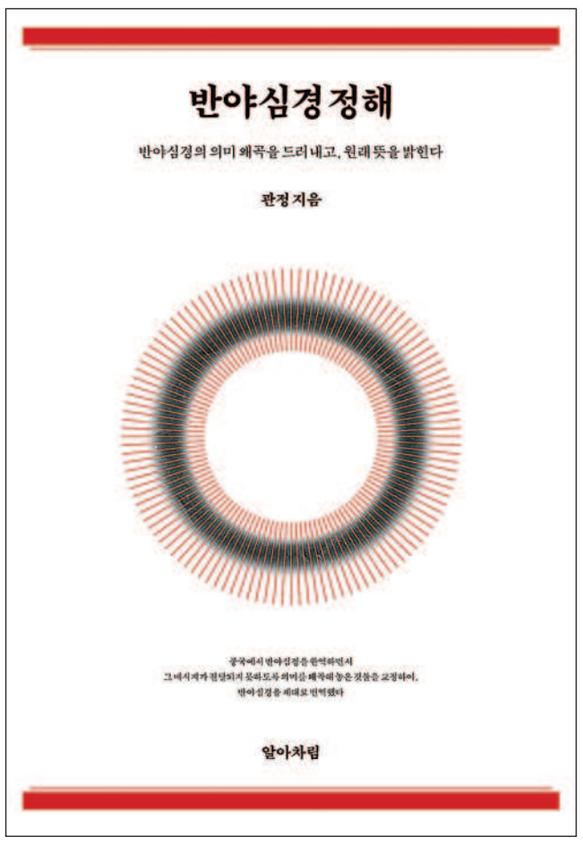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다 하니 따로 융화해야 하는 것 찾을 일 없고
모든 사물 나에게 이름 부르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였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 관정 지음 | 220쪽 | 양장제본 | 16,000원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으로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하여, 반야심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또 반야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고,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 관정 지음 | 791쪽 | 양장제본 | 65,000원

저자가 15년 동안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문본을 붙들고 씨름하여, 세계 최초로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해설한 역작이다.

중국에서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 하도록 의미를 왜곡해 놓은 것들을 모두 교정한 뒤 그것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했다

현재 13개 언론에서 극찬리 보도중!! 운주사 불교서적 7월 월간베스트 1,2위!

책을 추천하는 말

- 관정 스님께서 난해하기 짝이 없는 반야심경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여, 정확한 말로 번역, 해설한 것은 반야심경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 당나라 현장법사 이후 가장 많은 불전을 번역한 전재성 박사**
- 관정 스님은 단순히 반야심경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을 연구하여,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번역될 때 잘못 번역된 것을 모두 바로 잡았다.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의 저자 법상 스님**
- 관정 스님은 〈반야심경〉을 명료하게 번역해 놓았다. 관정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을 접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반야심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다. 여태껏 그 어떤 〈반야심경〉의 번역도 이런 뜻으로 해석한 것이 없었고, 이렇게 분명한 언어로 번역한 것도 없었다. **– 방어산 은둔 비구 普信(보신) 스님**
- 관정 스님의 이 책은 〈반야심경〉 역해사(譯解史)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질 것이며,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영남대학교 철학과 최재목 교수**
- 〈반야심경〉 책은 일본에서도 많이 출판됐다. 관정 스님의 반야심경 번역은 일본의 그 어떤 번역보다 정확하다고 본다. **– 경북대학교 일문학과 이종환 명예교수**

※ 기타 책 내용 및 저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이 책을 검색해서 얻기 바랍니다. 사찰 단체 구입 시 특별 할인가로 제공.

알아차림 출판사 051) 516–0093, david1080@hanmail.net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9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한때의 악한 생각이 훗날 많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매의 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익산시 여산면
천년고찰 천호산 백운사에서
신심있고, 경험이 있으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및 휴가는 전화로 협의바람
• • •
010-6513-4771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 • •
010-8721-2198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 • •
010-5049-1533

"우리함께" 부처님 공부하면서 살아갑시다

- 남은 생을 절에서 살아가실 분(부부 환영)
- 장기간 집중기도 하실 분
- 장기요양 하실 분 • 출가 하실 분
- 주지스님 공양주겸 시봉하실 분
- 출가한 스님으로서 절을 운영하실 스님
- 끝까지 주지스님과 같이 수행하실 스님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선에 있는 절로써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 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처 010-8945-1424

"영험약수"로 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지평 대종사 : 033-33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전수비 300만원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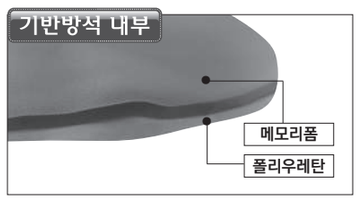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9호 | 18 | 전면광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3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인천
◎ 부지 : 700평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
◎ 매가 : 11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홍천강변 토굴 매매입니다.
- 춘천시 남면 한덕리 402-8번지
- 부지 총면적 : 1,000㎡(302평)
- 건물 총면적 : 90㎡(30평)
- 가액 : 6억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조정 가능함)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매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 대지136평
- 법당3채, 요사채1동, 화장실2, 정원처럼 잔디밭 조성
- 가액 : 3억 (절충가능)

010-4509-4061

절터로 좋은땅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 정남향에 위치, 630평
- 가액 : 평당 1백 20만원

010-9093-8324
010-9052-573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로 166(보문산 입구 5거리) ● 2층 43평, 시설금 6백만, 보증금 3백만 (합 9백만), 월세 4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전반시설및증설, 판넬설치완비, 도배, 장판, 음향시설) ● 5년전 인수금보다 6백만 절상(건강문제로 급매한것임)

보문산 지장사 무진 합장

010-3049-5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남이면
- 대지 : 951평 (종교부지) 300평(법당뒤 임야)
- 건물 : 법당22평, 요사38평, 지장전40평(2/2층) 창고40평(1/2층, 임대중)
- 신도다수, 시내근접
- 금액 : 현장 답사후 절충

010-3346-3302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창원시 마산 어시장 상가 3층 정오사
- 법당50평,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영가단
- 4층 스님방1칸, 에어컨2대, 난방기1대, 냉장고2대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554-3784

도심속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건강상 문제로 급매

010-9286-1008

토굴·별장 주택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상담하시는 분이면 최고의 자리
- 대지 253평, 건물 두채, 건물1 요사체 경량철골구조(벽돌마감) 연면적 30평, 방4개, 거실, 주방, 헤우소2개, 건물2 경량철골구조, 법당 20평, 방2개, 헤우소
- 가액 : 3억

010-4866-8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388평
- 대웅전 요사체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7천(절충가능)

010-4123-7594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포 교 원 안 내

- 동두천 소요산 동막골, 소쩍새 우는 수행터, 산사같이 조용함 특징 소요산 등산로 청정 1급수 계곡
- 스님 요양 · 휴양 · 사찰 · 철학관 · 보살 · 처사 · 일반인 ●도시가스 집수리 완료
- 소요산 전철역 10분거리, 28평형 103동 302호 방 3개 ●즉 시 입 주
- 가액: 9000만원 (월세: 1000/40)

010-3170-13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남향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 가액 : 11억

010-5309-9117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지 : 약 1,700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108돌탑, 쇼사체 2동,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 완, 집기 일체, 법회 바로 가능
- 가액 : 13억(답사후 절충가능)

033-562-0488

토굴겸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안성시내 외곽 대지40평
- 슬라브건물1숙소, 2층법당 합 18평
- 목조주택1층 주방, 숙소, 2층 옥탑방 합 18평
- 일반인도 살기좋음, 서울일일권역 50분대, 종합터미널 5분거리, 대형마트 대로 250m
- 가액 : 1억 6천

010-9484-7622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체 : 1동 약23평, 1동 약 25평, 2층 약6평
- 가액 : 3억 2천에서 5천만원 절충함

010-4999-5622

포 교 원 안 내

- 경남 밀양시, 5층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폐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
- 무료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거리, 사주 하시는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해드리겠습니다.
- 가액 : 보500, 월43, 권리금 4500

010-9424-4777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창원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2,231㎡(674평)
- 건물 총면적 : 279.12㎡(84평)
- 가액 : 12억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임야 약 130평
- 용호리 836번지 전 약 300평
- 합 3천750만원

010-7628-9997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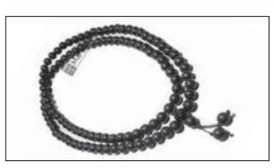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⑮ 서울 성북구 개운사 자귀나무

운명 바꾸고 싶으면 도량서 마음 열어라

개운사(開運寺)에 가려고 마음먹은 뒤 의미를 찾는데 목에 걸린 가시를 삼킨 듯 개운하게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개운하게'는 순한글 형용사이기에 접점이 없다. 그러다 〈도해 운명을 바꾸는 법〉 서평 기사에서 '전심개운법(轉心改運法)'을 접한다. 마음을 전환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말로서 정해진 운명으로 살 것인가, 운명을 바꾸어 깨달은 자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시작과 끝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자가 달라 연결이 어렵다.

안암역에서 내려 골목길보다는 넓고 대로보다는 좁은 찻길을 따라 일주문 앞에 다다르니 손을 모으기보다 눈만 껌뻑거린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이리로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곧바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옆길로 좀더 걸어갈까 하다가 일단 주차장을 가로질러 계단을 오르며 위를 본다. 전각들이 더 높은 곳에 있어 절 안에 들어온 것인지 아닌지 흐리멍덩해져 습관처럼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보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옴마니반메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온다.

그곳은 석조관세음보살입상이 있는 야외 도량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손을 모으려고 하다가 조용히 자리를 뜬다. 하늘과 땅을 울릴 듯한 옴마니반메훔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단 한 분의 수행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분에게 감사의 속말을 전한다. 이제 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정원에서 자주 시를 썼는데, "시의 본질이란 고요 속에 돌아본 감정"이라고 했다. 사찰을 찾는 이유도 그럴 것이다. 소음 가득한 도심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인데, 도심 속 사찰은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런데 그 어떤 시보다 짧지만 강렬한 안정을 주는 간결하고도 깊은 낭송에서 속세와 딱 구분되는 소속감을 가져다준 그 위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열려 있는 석조관세음보살입상의 가피가 아닐까. 그러면서 개운사의 열개(開)는 운명을 뒤바꾸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항시 열려 있는 도량이라는 상상에 다다르고, 그것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절로절로 우리절] 24시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포교중심도량 '서울 안암산 개운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운사 대웅전과 관음전 사이에 있는 자귀나무.

개운사는 조선 최초이자 마지막 왕사인 무학대사가 현재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부근에 절을 짓고 영도사(永導寺)라고 하였다가 이후 정확히 알려진 시기는 없지만 개운사로 이름을 바꾸었단다. 이에 관한 개운사 홈피 자료를 보면, "정조 3년(1779) 5월에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도사 자리에 묘소를 정하고, 명인원(明仁園)이 세워지자 인파당(人波堂) 축흥(竺洪)스님이 영도사를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현재의 자리에 절을 옮겨지었다고 하였으나 '사기(寺記)라는 문헌에는 영조 6년(1730)에 영도사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적혀 있다. 즉 영도사가 개운사로 이름을 바꾼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데, 개운사는 20세기 이후에 한국 교육불사와 불교의 진보적인 운동을 주도해 왔고, 지금은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이 처음 문을 연 곳이다.

옴마니반메훔 진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계단 주위를 벗어나 비탈길로 오르는데 일자형 사천왕문이 아니라 아치형 사천왕문이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환경에 따라 건축물 구조는 달라지는 게 인지상정인 법, 무심히 경내로 들어가 대웅전을 지나 명부전을 보고는 그 옆 쉼터에서 잠시 머물까 하다가 계단을 올라 산령각, 금륜전, 천대각이 한곳에 모여 있는 전각 뒤 숲을 본다. 그러고는 대웅전 뒤를 지나 관음전 사이에 서 있는데, 대부분이 초록인 가운데 한두 군데에서 흐려지는 연분홍빛을 움켜쥐고 있는 자귀나무가 숲처럼 우거져 있다.

자귀나무는 콩과 낙엽 소교목 또는 교목으로 높이 4~10m까지 자란다. 가지 끝에서 잎 위로 실처럼 뻗어 있는 꽃잎을 공작 깃털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꽃잎이 아니라 25개의 수술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를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 꽃잎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섬섬옥수 같은 아름다움이 있을 때는 자귀나무인 줄 바로 알 수 있다. 가을과 겨울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10~15cm의 콩깍지 같은 꼬투리 열매를 기억하면 또 자귀나무를 잊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2회깃꼴겹잎이라고 해서 가운데 하나의 잎자루에 7~10쌍의 잎자루가 옆으로 붙어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옆으로 자란 잎자루에는 1~2cm 정도 크기로 낫 모양을 하고 있는 작은 잎들이 짝수로 나 있는데, 이 잎들이 빛의 강약에 영향을 받는 엽침 때문에 밤이 되면 서로 포개진다. 마치 잠을 자는 모습 같다고 해서 자귀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그래서 부부의 금슬을 상징한다.

개운사의 개운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자귀나무의 자귀도 무언가를 연결하기 위해 무심코 찾아본다. 부설거사의 '但看心佛自歸依(단간심불자귀의)'가 나타난다.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귀의하시라.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미로에서 무엇을 이어야 할까? 답이 바로 보인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 있다고. 개운하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⑭ 이상국의 '선림원지(禪林院址)에 가서'

선림, '우리' 마음이 바로 그 '절간'
〈禪林〉

선림원지(禪林院址)에 가서/ 이상국

선림(禪林)으로 가는 길은 멀다
미천골 물소리 엄하다고
초입부터 허리 구부리고 선 나무들 따라
마음의 오랜 폐허를 지나가면
거기에 정말 선림이 있는지

영덕, 서림만 지나도 벌써 세상은 보이지 않는데
닭죽지 비틀어 쥐고 양양장 버스 기다리는
파마머리 촌부들은 선림 쪽에서 나오네
천년이 가고 다시 남은 세월이
몇 번이나 세상을 뒤엎었음에도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농가 몇 채는
아직 면산(面山)하고 용맹정진하는구나

좋다야, 이 아름다운 물감 같은 가을에
어지러운 나라와 마음 하나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소처럼 선림에 눕다
절 이름에 깔려 죽은 말들의 혼인지 꽃들이 지천인데
경전(經典)이 무거웠던가 중동이 부러진 비석 하나가
불편한 몸으로 햇빛을 가려준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마흔아홉 해가 걸렸구나
선승들도 그랬을 것이다
남설악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리움 때문에
이 큰 잣나무 밀동에 기대어 서캐를 잡듯 마음을
죽이거나
저 물소리 서러워 용두질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픔엔들 등급이 없으랴

말이 많았구나 돌아가자
여기서 백날을 뒹군들 니 마음이 절간이라고
선림은 등을 떼밀며 문을 닫는데
깨어진 부도(浮屠)에서 떨어지는
뼛가루 같은 햇살이나 몇 됫박 얻어 쓰고
나는 저 세간의 무림(武林)으로 돌아가네

–이상국 시집, 〈집은 아직 따뜻하다〉, 창작과비평사, 1998–

수미상관법(首尾相關法),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법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그 맛이 한층 더 맛있다. 첫 행의 '선림(禪林)'과 마지막 행의 '무림(武林)'이 그것다. '선(禪)'과 '무(武)', 기껏 한 끗발 차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다. 그 한 끗발이 '승(僧)'과 '속(俗)', '사바'와 '극락'을 천둥처럼 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불이(不二)이다. 둘이되 둘이 아니고, 하나이되 하나가 아니다. 이상국 시인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이 시를 통해 지금 불이법문(不二法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법문은 "선림(禪林)으로 가는 길은 멀"고 "엄하다"며, "마음의 오랜 폐허를 지나가면" "선림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치미 뚝 떼고 그곳에서 "파마머리 촌부들"이 "닭죽지(를) 비틀어 쥐고" "양양장"에 가기 위해 "나오"고 있다고 '할(喝)' 하고 있다.

세상을 비꼬는 솜씨도 빼어나다. "어지러운 나라와 마음 하나(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소처럼 선림에 눕"지만, "절 이름에 깔려 죽은 말들의 혼"이 "꽃"처럼 "지천"이고, "경전(經典)이 무거"운 나머지 "중동이 부러진 비석 하나가/ 불편한 몸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있다고 '승(僧)'을 꾸짖고 있다.

다음 법문은 더욱 재밌다. "남설악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리움 때문에" "선승들도" "큰 잣나무 밑동에 기대" "서캐" "잡듯" "마음을 죽이거나" "물소리(가) 서러워 용두질을 했을지도 모른다"며 "슬픔"에도 "등급이" 있다고 홍포(弘布)하고 있다.

마지막 법문은 더욱 재밌다. 선림에 와서 "말이 많았"다며 "여기서 백날" "뒹군들" "니 마음이 절간이라고/ 선림"이 "문" 닫으니 "깨어진 부도(浮屠)에서 떨어지는/ 뼛가루 같은 햇살이나 몇 됫박 얻어 쓰고" (선림이나 무림이나 매한가지니) "무림(武林)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다시 한 번 '할'을 '빵' 터뜨리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상국 시인이 이미 승속의 경계를 뛰어넘은 '왕고수'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왜 이 시를 수미상관법으로 읽어야 하는지도 느낄 수 있다. 선림이 무림이고, 무림이 선림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맞다. 그것이 불교요, 우주의 작동원리다. 또한 그것이 불교의 보편성이요, 무차별 무차등의 인간관이다. 이틈에 이상국 시인의 '할' 한 방을 더 맛보자.

"동서울터미널 늦은 포장마차에 들어가/ 이천 원을 시주하고 한 그릇의 국수 공양(供養)을 받았다/ 가다꾸리가 풀어진 국숫발이 지렁이처럼 굵었다/ 그러나 나는 그 힘으로 심야버스에 몸을 앉히고/ 천릿길 영(嶺)을 넘어 동해까지 갈 것이다/ 오늘밤에도 어딘가 가야 하는 거리의 도반(道伴)들이/ 더운 김 속에 얼굴을 묻고 있다" **이상국의 '국수 공양' 전문–이상국 시집, 〈뿔을 적시며〉**

맛있는 '할' 한 방이 더 있다.

"스페인 축구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에게 골을 자꾸 넣으니까/ 해설자는 보기 안됐던지/ 마드리드에게 자비가 없다고 한다/ 인간이 지어낸 말이긴 하나/ 수천 년 마음의 일이었던 자비가 그렇게/ 격렬한 육체의 일에까지 관여할 줄 몰랐다/ 〈중략〉 자비는 본시 용서나 슬픔의 어머니였는데/ 지금은 지구상에 거처할 데가 별로 없다/ 나는 누구에게 자비를 구한 적이 없거니와/ 〈중략〉 고작 죽을 말이나 따라 다니는 시인을 내버리고/ 박지성이 활약했던 멘체스터 유나이티드쯤에서/ 무자비하게 뛰어보고 싶다" **이상국의 〈자비에 대하여〉 전문–이상국 시집, 〈달은 아직 그 달이다〉**

아, 말이 많았다. 입 닥치고, 필자도 다시 선림으로 들어야겠다. 아니, 무림으로 돌아가야겠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미얀마 청년의 일상

2015년 한국 찾은 민팡씨…호흡곤란…기침 잦아 병원 찾았다
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하루 병원비만 1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⑧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한줄요약
타인의 죽음을 편안하게 돕는 것도 수행의 일환이다.

타인의 왕생극락 돕는 수행, '조념'
〈助念〉

나의 죽음 못지않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인생의 대사이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자식이나 반려자 등 사랑하는 이의 목숨이 더 소중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을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종료된 상태로서의 죽음(death)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과정 즉, 죽어감(dying)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는 불교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정토불교이다. 정토불교에서는 염불을 강조하며 그 방법은 규봉종밀(圭峰宗密)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종밀은 칭명염불(稱名念佛: 불보살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것), 관상염불(觀像念佛: 불보살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 관상염불(觀相念佛: 불보살의 상호와 공덕을 관하는 것), 실상염불(實相念佛: 일체 법의 참된 자성, 법신을 관하는 것)의 4가지 수행법을 제시했다.

특히, 정토불교에서는 사후 극락왕생을 위해 '임종시 염불' 을 강조한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중 제19원은 "중생들이 임종시에 내가 대중들과 함께 임종자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臨壽終時 假令不與 大衆圍遶現其人前者 不取正覺)인데, 이는 제18원과 연결된다. 제18원에서는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좋아해서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십념(十念)을 했음에도 왕생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十方衆生至心信樂 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不取正覺)고 말한다. 물론 제18원의 십념이 임종시에 행하는 것인지 생전에 행하는 것인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경전에 따르면 생전이든, 임종시이든 어느 때나 십념을 행하기만 한다면 내영(來迎: 사망시 아미타불이 임종자를 맞이하러 오는 것)과 극락왕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소 수행을 하지 않던 사람이 임종시 염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죽음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혼미함을 동반하는 현상인데 지독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염불은 살아 있을 때부터 임종까지 이어지는 부단한 수행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 염불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불교도가 아닌 경우, 혹은 가족이나 친인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죽음을 다루어야 할까? 심지어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서는 "계율을 범하거나 악행(惡行) 혹은 오역죄(五逆罪: 부모를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등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저지른 자도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시방세계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국토를 생각하여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고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저의나라에 태어나고자 했으나 이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十方衆生聞我名號 係念我國殖諸德本 至心迴向欲生我國 不果遂者 不取正覺)라는 아미타불의 제20원을 설하는데, '저의 이름을 듣고' (聞我名號)라는 어구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지 않고 '들음' 으로써 왕생이 가능한 '문명수행(聞名修行)' 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에서 주목받는 염불
타인돕는 '문명수행'으로 활용
정서 안정, 편안한 임종 도와

문명수행은 평소에 염불을 수행했으나 임종에 임박해 정신이 혼미해져 염불할 경황이 없는 경우, 혹은 평상시에 신심이 없던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 친척들이 그를 측은히 여겨 선지식이나 염불행자들을 통해 염불을 듣게 함으로써 신심을 내게 하는 경우에서 가능하다. 물론 명호를 듣는 것만으로도 극락에 왕생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명호를 듣고 공덕의 근본을 심고,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해야하며, 극락에 태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지만 제20원은 문명수행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명수행은 조념(助念)과 관련 된다. 조념은 염불행자들이 임종자의 곁에서 대신 염불을 행해주는 것이다. 중국 근대기 정토교의 중흥조인 인광(印光)은 〈임종삼대요(臨終三大要)〉를 통해 조념을 행할 때 '임종자를 훌륭히 이끌어 바른 믿음이 일어나도록 돕고' , '교대로 염불하며 임종자가 정념(淨念)에 임하도록 도우며' , '임종자 곁에서 울거나 흐느끼지 말아야 한다' 는 조념의 태도를 제시했다.

더불어 인광은 조념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1) 교대염불: 세 집단으로 나누어 첫 번째 집단은 소리내어 염불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묵지염불(默持念佛: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대로 염불한다. (2) 염불소리: 끊기지 않도록,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빠르거나 늦지 않게 소리를 내야한다. (3) 염불내용: 시작 시에는 육자(六字: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얼마 후 사자(四字: 아미타불)을 행하여 자수를 줄여 임종자가 따라하도록 한다."

인광이 제시한 조념에서 중요한 점은 임종자가 목숨을 마치기 전까지의 '지속성' ,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염불소리를 조절하고 '나무아미타불' 육자 대신 '아미타불' 의 사자를 권하는 '적절성' 이다. 특히 인광은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할 점은 임종자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 곁에서 흐느끼지 말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떠나는 이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인광 대사의 조언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식이 군입대를 하는 경우, 훈련소 입구에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있는 것과,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떠나는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죽음을 다루는 문제는 불교에서는 정토불교의 염불을 꼽을 수 있으며 현대 죽음학에서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를 들 수 있다. 현 사회의 임종은 주로 의료시설에서 이루어지며 말기 환자가 의탁하는 곳은 호스피스 시설, 요양원, 중환자실 등이다. 특히, 임종기 환자를 보살피는 대표적인 용어는 '호스피스(hospice)' 로서 호스피스는 서구 근대기까지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수도원의 시설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의미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질병이 진행되면서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 의료' 이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단순히 시한부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틀 속에서 질환을 다루고 임종에 이르는 상태에서는 증상을 관리하며 통증 등을 경감시키는 완화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환자의 사망 이후에는 유족들을 돌보는 영역까지 포함한다.

최근 몇 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도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연구에서는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총156명을 대상으로 6주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가족과 친구의 죽음, 삶의 마무리, 철학과 종교의 죽음, 임종과정과 존엄한 죽음준비(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유서의 의미와 작성, 사전의료의향서 등이었다. 연구결과 교육집단의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임종에 대한 불안과 우울이 감소 되었다. 특히, 교육 후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29.4%(사전)에서 85.7%(사후)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내 전체사망자의 63.5%, 암사망자의 74%가 병상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말기환자나 가족 대부분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대처 등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서적 돌봄, 사별인에 대한 관리 같은 심리적 돌봄을 포함해 약물투여 및 처치(통증완화), 호흡, 구토, 욕창 등의 관리, 영양관리 등 신체적 돌봄이 포함된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통증관리이며 시설에서는 환자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통증은 당사자나 주변인들에게 죽음을 공포의 이미지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 요소이다. 말기 암환자 92명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임상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 임종 전 48시간 동안 신체 증상 중 통증(57.6%)이 가장 많았고 의식혼란(55%), 호흡곤란(48%), 배뇨곤란(42%), 정서불안(41%) 순이었다.

그리고 임종 전 24시간 동안의 증상은 의식혼란(42%), 의식상실(41%), 통증(38%) 순이었는데 연구에서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통증과 구토는 감소하나 의식혼란, 정서불안 등의 증상은 증가한다고 보고했으며 통증과 구토는 병리 기전(機轉)이 비교적 분명해 조절이 가능하지만 의식혼란 같은 증상은 임상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조절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통증, 호흡곤란 등은 의학적 조절이 가능한 '신체적 증상' 에 속하며 의식혼란, 정서불안 등의 증상은 의학적 조절이 힘든 '심리적 증상' 에 속한다. 그렇다면 심리적 안정은 어떻게 조절해야할까? 그 해답은 신앙, 염불수행 같은 종교적 영역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조념은 주변인의 염불을 통해 환자의 내면을 조절해주는 행위이며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통증관리를 중심으로 신체를 관리하고 환자와 가족의 정서를 보살피는 행위로 요약된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삶의 질, 존엄한 죽음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임종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염불, 명상 같은 경험적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호스피스 · 완화의료 체계에서 정서적 돌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진통제 같은 약물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거나 간호와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이 많다.

불교윤리적 입장에서 임종시에 약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임종시에 염불이나 종교의례 행위만을 주로 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의 의견은 약물 사용을 통한 증상완화와 더불어 조념 같은 종교적 수행을 함께 병행하여 임종자의 심신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이 시대적 맥락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대행 스님

나 하나를 버린다면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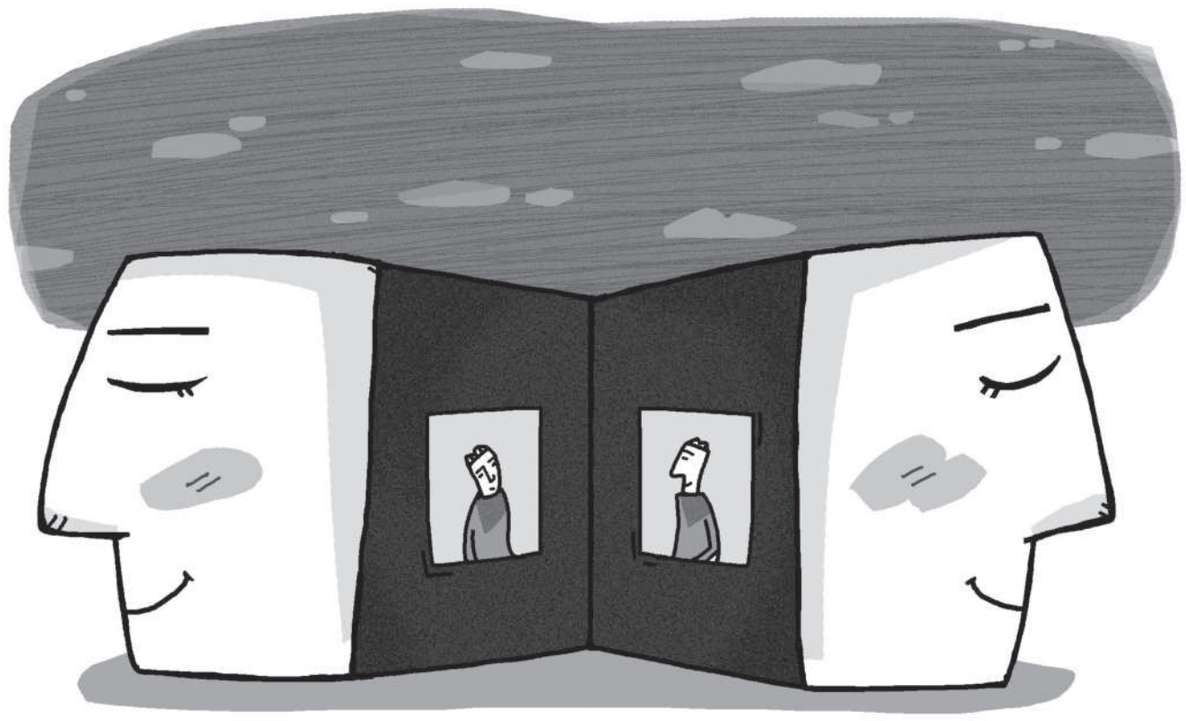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났군요. 우리 이 머리가 하나의 해골로 구성이 됐지만 너 나가 있듯이 대뇌 속에 반쪽씩 나누어져서 들어 있다고 봅니다. 우측은 잠재의식 자체로서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대뇌의 우측이라고 봅니다. 또 좌측에는 현재 50% 현상 생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애비 묘지와 자식 묘지가 있는데 양면이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자식이 애비한테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고, 애비가 자식한테로 오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니 그 연고는 무슨 연고냐.' 하고 묻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젊었을 때에 그저 무조건 길을 걸을 때에 있었던 얘깁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다 부처 될 수 있는 가망성이 99%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대로 여여하다고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대뇌의 안에 있는 우측 좌측이 한데 계합이 돼야만이 여여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계합이 되지 않는다면 여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오관을 통해서 마음으로 드는 것은 바로 좌측으로 들어서, 우측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니 그것이 거기 통과됩니다. 그러나 그건 무시하고 여러분이 이 대뇌에서 지금 사용하는 50%만 가지고 항상 들이고 내고 하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미처 능력이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려고 기계 하나를 사서 들여놓는다면 그 속이 어떻게 조립이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알아야, 겉은 아무렇게나 생겼어도 '아, 이건 겉만 손을 본다면 능히 쓰고도 남고 이 기계는 참 좋구나!' 하고 싼값에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죽을 말끔히 해 놓고 속은 망가진 거를 고쳐서 갖다 놓고 팔려고 그런다면 거죽만 보고 속은 못 보니까 그건 여러분이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흡수해서 들이는 것이 이 대뇌의 우측에 잠재해 있는 그 모든 광대무변한 뜻과 법이 거기에서 송두리째 계합이 되면 나온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러면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계추와 같이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마는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용의 능력은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뇌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먼저냐, (오른쪽 머리와 왼쪽 머리를 차례로 짚어 보이시며) 이게 먼저냐' 해도, 이건 먼저 될 게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순환되고, 똑같이 대뇌에서부터 소뇌로 이렇게 해서 사대(四大)로 다 통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음식 먹어 보지 못한 건 생각조차도 못 하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툭겨 가면, 여러분은 그때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뇌의 좌측에서는 오관을 통해서 들이는 거를 우측에 항상 맡겨 놓는다. 내는 것도 맡긴다. 그럼 대뇌의 반쪽씩 있는 데다가 다 맡긴다면 자(子)가, 즉 말하자면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모든 걸 달랠 때도 "아버지!" 또 들일 때도 "아버지!" 하고서 말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아버지!" 다 자라기 이전에는 아들은 아버지한테 반드시 기댑니다. 아버지한테 기대지, 부모한테 기대지 않으면 어디다 기댑니까? 자기가 장성할 때까지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해서 나가고 장가들 때까지는, 시집갈 때까지는 부모를 믿고 따라야죠. 자기가 혼자 하는 것도 있겠죠, 이게 옳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나 이것이 생각해 봐서 잘 안될 때는 아버지한테 상의를 해야죠?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것은 '이것이 남과 내가 다 뭐, 그렇게 구차하게 악하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러나 정히 안 될 때는 고심을 하면서 부모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죠. 이러한 거와 같이 이 대뇌에서 좌측 뇌는 우측 뇌로 다 맡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마음이 나와서 그러느냐? 마음은 마음대로 나와서, 나오게 되면 벌써 뇌로 가죠? 뇌로 가서 이쪽으로 다 맡겨 놓으면, 맡겨 놓으면 거기서 돌아서 다시 좌측으로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불리한 거를 맡겼는데 불리하지 않게끔 바깥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용광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번 굴려서, 속이 상하더라도 한번 거기 맡겨서 굴려서 내놓으면 좋은 말로 나갈 수가 있다. 그냥 곧이곧대로 속상한 대로 여기 대뇌에 들어갈 사이도 없이 여기서 곧바로 그냥 쏴 대면 그건 거기까지, 지혜로운 그 능력이 거기까지 밝게 못 비춰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을 이끌어 이렇게 같이 항상 도반으로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 못 하고 있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돈을 받고 사는 거라야만 하고, 사는 거를 주면 참 고맙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물건을, 먹을 거를 줬다면 고맙다고 하고 또 거기 더 좀 붙여 돈을 얼마를 보너스라도 줬다 하면 참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공기나 물이나 불이나 흙이나 이런 거 보고는, 바람 같은 거 보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공기를 사서 먹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병원도 어디 고장만 나면 가서 집을 팔아다가라도 갖다가 디밀곤 수술을 하고 야단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주상 보시로 그대로 지금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거는 어디다 감사해야 하느냐? 내 주인공입니다. 나도 지수화풍이 근본입니다. 일체 만물이 다 지수화풍이 근본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수화풍 아니면 지금 어떻게 사시렵니까? 지금 지수화풍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보다도 여러분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고마워해야 하는 거를 모르고 저 사람한테 절을 하고 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시계추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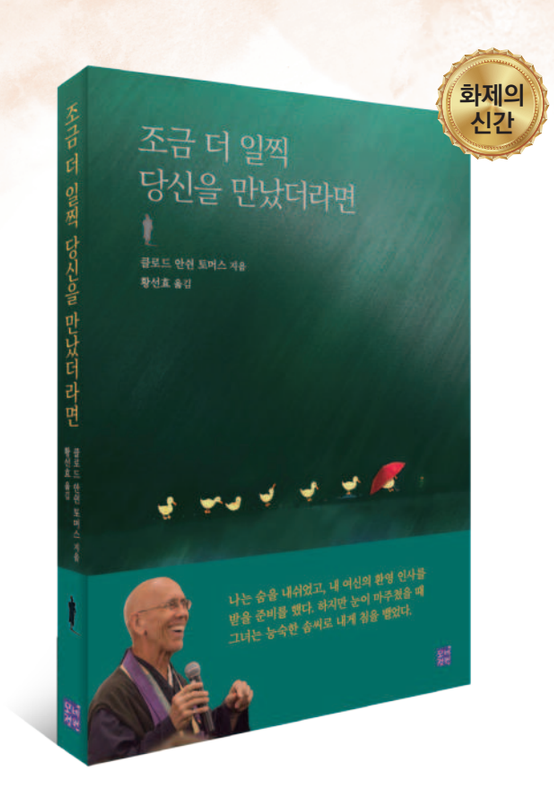
이리로 가도 아니고, 저리로 가도 아닙니다. 이리로 갔는가 하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갔는가 하면 벌써 이리로 갔고, 어떻게 그것을 너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습이 각각이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둘이 아니게 돌아가지마는 네가 있고 내가 있다. 네가 있고 내가 있지만 둘 아니게 돌아가는 그 소식을 안다면 여러분은 작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벌레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벽도 터지고 봇장도 터지고 사방이 다 터집니다. 우리 태극기에도 있습니다. 천지가 있는가 하면 천, 지, 인이 있어요. 그래서 삼, 사, 오, 육까지 이렇게 점을 찍어 놨죠. 이게 세상을 말한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병원에서 "심장만 뛰지 목석처럼 이 정신이 깨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 노릇을 못하고 산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죠.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괴롭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또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심장이 뛰는 것도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충만히 돌아가기 때문에 삼계(三界)를 돌고 있습니다. 심장으로부터, 뇌로부터, 저 발끝으로. 지금 여러분이 딛고 다니는 것도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땅 이 자체

☞ 22면으로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일체가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기에 찰나생활이면서 공했다

☞ 21면에서 계속

도 세포가 있는가 하면 자력도 있고 전력도 있죠. 광력도 있고 통신력도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디디는 것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끕니다. 땅도 자기네 힘대로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디딜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그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거, 모든 일체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또 천체물리학이나 의학이나 다 우리 한마음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어떤 스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통지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승려 노릇을 하면서도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관에다 넣어서 다 해 놨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나가서, 예전에는 산소를 썼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딛고 가는데 벌써 요 한 마디, 발가락 요 첫 마디에서 벌써 지하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것만 도가 아니라 통신이 됐으면 볼 줄 알고…' 하는 것이 이게 심안의 눈이에요. 이 속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줄 아시지 말고, 시계추가 여기 갔다고 해서 여기 간 줄 알지 마시고, 저기 갔다고 해서 저긴 간 줄 알지 마시라 이거예요. 온 누리에 눈이니까. 여기인들 눈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통신이 가면 통신이 오기 때문에 심안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는 우측 대뇌에서는 모든 거를 합리적으로 꾸려 나가면서 대의적으로 광대한 법을 탁 가르쳐 주죠.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딱 섰으면 여기가 그대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혈액이나 산 혈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데를 찾아서 한다고 해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통신이 돼서 딱 서면 그 자리가 그냥 법이야.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나쁜 데도 좋은 데라고 딱 지적하면 좋아지고, 자리가 좋은데도 사람이 아주 괘씸스러워서 수십만 명의 생명들을 해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산소 좋다면 자기가 그걸 뺏고, 자기 산소로 묻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저건 참 안되겠다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데다 썼어도 그 집안은 아주 안됩니다.

그러니 그 한생각의 도리가 얼마나 깊고 깊고 또 깊어서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말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법 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 도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냥 부처님 법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되 함이 없다 하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한테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집어먹어서 그만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 내가 집어먹어서 또 없다구요. 그러니 누가 말을 했으며 누가 들었느냐고 말할 수밖에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찰나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에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체가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찰나 생활이면서 공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 하면, 나쁜 꿈을 꿨다 하더라도 '나쁜 꿈을 꾸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좋은 꿈을 꾸고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지.' 한다면 그게 그대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머물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죠? 그게 운전과 같은 것도 되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좋게 한 것도 거기지. 감사하구나.' 이렇게 일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라면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그대로가 참선이요 행선이요 길입니다.

그렇게만 지낼 수 있다면 여여함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오르고, 내 집안이 다 망한다 뭐, 송두리째 바가지 들고 얻어먹으러 나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원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는 능력은 뭐냐. 허! 그것도 코웃음 나는 거죠. 왜냐. 그렇게 없는 걸로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신장, 호법신, 수호신 뭐, 모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와 가지고 다 살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죠, 나같이. 여러분이 안 주면 안 먹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하하하. 또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그냥 다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부처님, 부처님!" 하고 하도 밖으로 형상만 찾길래 그냥 내다가 도끼로 부숴 버리고 나니까 죄들 안 온대요. "안 오면 그만둬라. 내가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뼈다귀 끓여 먹고, 또 부처님 이름 팔아서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해서 먹고 산다면 혓바닥을 깨물고 죽어버리지." 하고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보니까 그냥 그냥 나오셨대요. 왜 나왔느냐고 그랬죠. 그랬듯이 내가 '신도들이 많이 와야겠다, 또 많이 걷어야겠다' 그런 걸, 부처님을 팔아서 그런 걸 많이 해서 뭘 합니까? 따지고 보면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가고,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허허, 집도 가져가지 못하고 내 몸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그렇게 근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또 더불어 같이 돌아가면서 너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시간 약속 지켜라. 또는 의리를 지켜라. 도의 또 질서도 지켜라. 우리가 인간 된 도리를 다 지킨다면, 그것도 거기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지킨다면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뭐, 이런 거, 사제법이니 십이인연법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원심력이 충만하면 원통력을 굴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이걸 일일이 따지자면,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 올바르게 정진해야 한다." 이 소리를 다 하려면, 이 소리를 다 듣고 복잡하게 하려면 언제 공부해 나가십니까?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신통의 재료가 충만히 여러분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거를 쓸 때는 감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나 지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공부가 여간 대단한 공부가 아닙니다. 참 광대무변한 법이죠. 그러니 어떠한 문제로 우리가 이익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수만 명에 피해가 생긴다면, 내가 여러분을 이익하게 하고 해롭게 안 하려는 마음으로 끌고 가면 그게 딴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다 할 일이란 말입니다.

누가 갖다 줍니까? 누가 뺏어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뺏어 가거나 뺏기지 않고 또 갖다 주는 게 없으니 자작! 이리로 가도 이리로 간 것이고, 저리로 가도 저리로 간 것입니다, 이 머리의 두뇌가. 그러니 이것을 (머리를 만지시며) 통틀어 여기다가 놓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놓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 놓게 됨으로써 스스로 무심, 그대로 무심도가 돼서 그대로 그 한 소식을 알고 있느냐 해서 "할!" 이러기도 하고, 주장자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주먹을 내밀기도 하고,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더란 얘깁니다.

옛날에 서산 대사가 공부하실 당시의 얘기입니다. 서산 대사님이 공부하러 가실 때에 쌀을 한 짐 마차에 싣고 가다가 보니깐 아, 소가 꼬꾸라지더랍니다,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내가 지고 가서 사시마지 때에 공양을 올리려고 했던 쌀인데 어째서 내가 지고 가지 않고 소에게다가 밀어 던졌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쌀을 짊어지고 다시 20리 밖을 나와서 20리를 다시 쌀을 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남한테다 떠넘기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공양을 천 일을 올리다가 보니까 천 일째 공양을 다 올리고 마지막에 관(觀)하고 있는데 별안간, 일곱 사람이 총을 겨누면서 그냥 쏘더랍니다. 쏘는 그것을 이렇게 돌아다보니깐, 너무 우스워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얼마나 크게 웃었던지 말입니다, 중국 대륙에 전부 들렸답니다, 그 소리가. 허허허. 그래서 임금이 말입니다, 국사를 두고 쓰는데 "저 소린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조선의 스님이 깨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응?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서산 대사가 그렇게 깨쳐서 돌아다보니 아무 간 곳이 없더라는 거야. 그 생각 한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깨쳤고, 어떻게 했길래 일곱 명이 총을 쏘고선 그냥 없어졌는지…. 그 일곱 명은 누굴까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또 각각 보시겠지, 허허허. 저 칠성(七星) 별도 각각 보시겠죠? 그렇게 각각 보니까, 그것도 각각 보시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태양도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서산 대사께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셔서 아무리 그 어떠한 게 와도 눈도 깜짝 안 했답니다. 그건 왜냐? 나 하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나 하나 버린다면 구태여 그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 집 새로 짓고선 도둑이 들었죠. 그래 저녁에 그랬습니다. "얘야!" 그때 요만한 처녀 아이가 밥을 했었어요. 여기 집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도 선생님이 오늘은 오실 것 같다. 그러니 문을 꼭꼭 잘 잠가라." 그러니까 "아니, 어떤 선생님이 오십니까?" 그래. 하하하. 그래서 그랬죠. "도 선생님 말이야." 그러니까 "도 선생님이 누구세요?" 그래. 그래서 "아, 와서 가져가면 도 선생이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그날 딱 잠그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말해 놓고 내가 문을 열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하실에 보일러를 땔 때에 내가 땠으니까, 내가 보일러쟁이니까 새벽에 추우니깐 내려가서 그 보일러를 올리고선 그러고는 변소에 갔다가 그 변소 문을 잠그지 않고는 그냥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죄임에 자기가 빠지는 거지. 그러게 문을 아무리 막아 놔도 안 돼요. 아주 차라리 열어 놓는 게 낫지.

그래 인제 열어 놨더니 단지 문만 떼어 내 놓고 그냥 들어오신 거지. 그런데 내가 보일러에 불을 넣고선 떡 방에 들어와서 팔장을 끼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사르르르 열고 들어와요, 4시쯤 됐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깐 아주 계란색 잠바에다 계란색 내리다지로 해 입었어요. 하하하. 그러곤 발소리도 안 나요, 농구화인데. 착착 딛는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 들어오길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허허허, 그러니까 의아해하더라고. 너무 난감해, 아주!

그런데 그때 내 시계를, 옆에다 풀어 놓고 있었던 그것밖에는 없는 거야, 인제.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계를 얼른 집어 주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 사람 놀라게 뭐 하러 이렇게 드릴 것도 없는데 오셨습니까? 드릴 게 있을 때에, 오시라고 할 때에 오세요." 내 말이. 그러면서 그 시계를 집어 줬겠다. 그랬더니 그 시계를 얼른 받아 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거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싱긋이 웃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웃었지, 뭐. 허허허. 그랬더니 영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 놔도요.

그랬듯이 사람이 사람이니만큼 마음이라고 마음! 벌써 문에 들어올 때에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깐,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줄 게 없고 가져갈 게 없어도, 악이나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면 그거 좋을 게 뭐야?

(다음 호에 계속)

>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오르고
> 내 집안이 다 망한다 뭐, 송두리째 바가지 들고 얻어먹으러 나간다 해도
>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원력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8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불 논단

우리는 오늘을 산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코로나19 유행 등 부정적 변화 증가
해답 못 찾고 막연한 환상 속에 살아
주식투자, 코인, NFT 등이 이를 방증

'수처작주 입처개진' 임제록의 가르침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는 교훈
부처님 가르침, '오늘을 살라'고 강조
행복은 어제, 내일 아닌 현재에 있다

코로나19 사태, 러 ·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 열거한 것만 봐도 그 변화는 결코 좋지 못한 것이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현실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점차 내일의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렸던 주식투자와 코인, NFT 등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현재 자신의 자리를 넘어선 피안의 행복을 바라며 생겨난 현상이다. 다시 말해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상적인 것을 찾아 떠난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투자열기가 그 열기만큼 뜨거운 결과를 가져왔다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대부분이 더 큰 어려움과 상처가 되어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투자와 투기가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한 실정이라 어떠한 위로나 이야기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정도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의 주인이 되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참되다'는 〈임제록〉의 유명한 구절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거나, 미디어에 나오는 허황된 모습에 빠져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꿈에 빠져 살아간다. 우리가 우리로써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서있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며, 정작 자신이 무지개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무지개 너머의 환상만을 쫓게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는 〈금강경〉의 구절로, 어떠한 집착도 가지지 말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이다. 이는 지금 무언가 하고 있고 하려는 것에 대해 먼저 결과를 두고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하거나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경책하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러다보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또한 지금의 형편을 탓하며 무리한 투자로 허망한 결과만을 쫓게 된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좋다고 하여 그것만을 유지하려 하거나 그만큼의 결과를 항상 바란다면 지금을 살면서도 과거만을 회상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圓覺道場何處 現今生死卽是)', 해인사 법보전의 주련으로, '중생들이 그토록 찾아 해매는 깨달음이라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법보전에 이러한 주련이 있다는 것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사회와 경제가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 걸음은 우리와 사회를 내일로 이끌고 가는 큰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은 지나간 어제에 있는 것도 다가올 내일에 있는 것도 아닌 바로 한 걸음 내딛은 오늘에 있음을 여실히 알아야 한다. 힘든 오늘이지만 그 하루를 견뎌낸 힘은 분명 행복을 맞이하도록 이끌고 갈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요즘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곳이 어디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오늘의 자신을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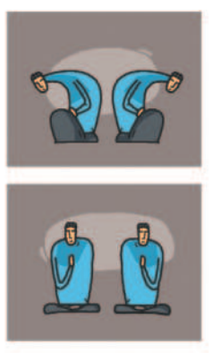
송마나의
시절인연

이열치열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말복이다. 삼계탕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음식점 안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부터 삼복에는 뜨거운 백숙을 먹고, 엄동설한에는 차가운 냉면을 먹는다.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으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극복하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이다.

부정의 부정으로 긍정을 이끌어내려는 것일까. 추우면 살얼음이 끼는 동치미에 국수를 말아먹고, 더우면 뜨겁고 매운 육개장을 먹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려고 한다.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여 고(苦)를 이겨내고자 한다. 공부를 하거나, 수도를 하면서 자신을 더 부자유한 곳으로 끌어들여 진리의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묘향산에서 기거하던 서산 대사에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서산 대사가 엎드려 호랑이 흉내를 내면서 '어흥' 하고 으르렁거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은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서산 대사가 엎드려 호랑이 시늉을 한 것은 죽음을 만나면 내가 죽음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대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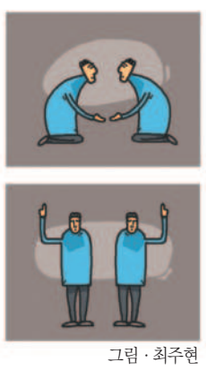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들은 늙거나 병들기를 싫어하며, 죽음은 더욱 회피하려고 한다. 인간에게 생로병사(生老病死)는 당연한 이치인데 피하려고만 한다.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를 피해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생로병사는 붙잡아 매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늙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늙으라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한다. 늙음은 늙음에게, 죽음은 죽음에게 맡기는 것이다.

삶이 끝나면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生)은 사(死)를 위하여 있고, 사는 생을 위하여 있다. 색신(色身)이 없어져야 법신(法身)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색신은 법신이 드러나도록 하고, 법신은 색신이 살아있도록 한다.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생즉사(生卽死)요 사즉생(死卽生)이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지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죽는 것이 오늘 사는 것이고, 오늘 사는 것이 오늘 죽는 것이다.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깨달음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을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날 열탕 속으로 들어가고, 추운 겨울날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다. 그 정도의 고행도 없이 자유한 자가 되겠는가. 〈작가〉

社 說

화합 · 안정 택한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前교육원장 진우 스님의 단독출마로 확정됐다. 후보등록 기간 중 후보 1명만이 접수함에 따라,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처음으로 선거 절차 없이 무투표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제37대 총무원장 선출과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흥미롭다. 선거공고 이후 단일후보에 의한 합의추대를 바라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추대 분위기를 조성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제37대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는 그간 종단에서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각종 폐단들이 자취를 감출 것이란 사실이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금권선거 논란, 음해와 의혹제기, 분열 등 극심한 혼란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로 인해 선거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상처가 적지 않았다. 이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원로 · 중진 스님들은 물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한 합의추대를 향한 원력이 결집한 이유이기도 하다.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지도자이자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인물이기에, 선거로 인한 폐단이 반복돼선 안 되며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여법한 축제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단일후보로 출마한 진우 스님은 8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치면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며, 원로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9월 28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선거로 인한 폐단 없이 화합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 2건학' 금강대에 거는 기대

천태종립 금강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표방했다.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전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우수 졸업생들에게 해외 대학원 학비 지원도 이뤄졌다. 2006년에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564만원으로 전국 154개 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강대는 위기에 직면했다. 학내 갈등으로 내홍은 심각했고, 외부 교육 환경 변화로 지방 대학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역량 평가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꼬리표를 달았다.

그동안 와신상담한 금강대는 올해 5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강대 재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8월 11일에는 '제2건학'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불교학과와 행정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를 통합해 '프리마나 학부' 단일학부 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문사회적 인재를 양성을 위해 동 · 서양 고전 100권 읽기와 학생 능력에 맞는 전문 과정을 수학할 수 있게 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3튜더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금강대를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강대의 이 같은 변화는 지방대학 위기 시대에 색다른 시도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인문학에 집중하며 학생의 재능에 맞는 전문 전공을 배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3튜더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교원 · 교직원이 학생을 집중 케어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금강대가 얼마나 변화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금강대의 변화가 '작지만 강한 대학'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항균&소취
FDA 등록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쿨~! 마스크 (연꽃문양/5색)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대량주문시 별도문의
5개 1셋트 27,500원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4개 1셋트 15,000원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4개 1셋트 22,000원
※ 3만원 미만 주문시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과 함께하는 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유쾌한 설명과 성지에서 신심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 한식 요리사가 대동합니다. (바라나시 – 럭나우구간)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
2일 : 델리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성불지 부다가야 : 성보리수, 금강좌, 마하보디대탑
5일 : 마가다국 라지기르 : 왕사성,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 빔비사라왕 감옥터, 세계 최초 불교대학 나란다대학터
6일 : 라지기르 – 바이샬리 : 대림정사
7일 : 바이샬리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8일 : 쿠시나가르 – 탄생지 룸비니
9일 : 룸비니 – 코살라국 쉬라바스티 : 기원정사, 사위성
10일 : 쉬라바스티 – 아그라 : 타지마할, 아그라성
11일 : 아그라 – 델리
12일 : 인천 도착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 & 특수지역전문